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 유형분석 및 집행관리방안

김명규·김민경·지은초

2022. 12.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유형 분석 및 집행관리방안

연구총괄 : 김명규 연구위원

공 저 자 : 김민경 부연구위원, 지은초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200 ✉ mkim@kpfis.or.kr

요약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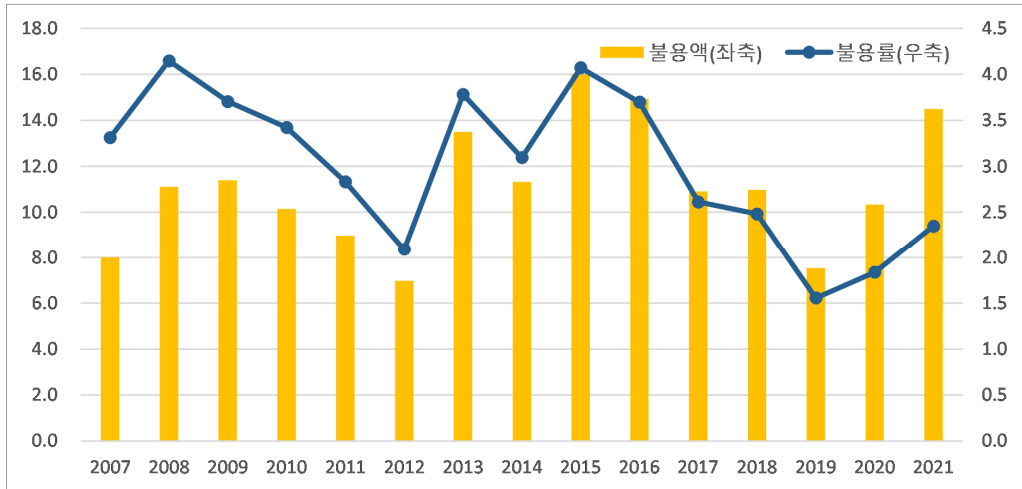
-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연례적인 불용사업이나 집행행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예산의 불용은 어떠한 이유로 지출되지 못한 예산을 의미하며, 회계 운용 과정과 사업 추진 과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결산상 불용사유를 통해 불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 불용 발생 유형과 재정사업의 지출패턴을 분류하고, 집행 또는 예산편성단계에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요 불용사업의 사례를 통해 불용사유를 유형화하고, dBrain 사유 입력 개선방안 제시
 - 재정사업의 지출패턴은 월 집행 변동성을 고려하여 불용률과의 관계를 분석

2 재정사업 불용 현황

- '12년도부터 '21년도 결산 dBrain+ 자료를 활용하여 불용 추이를 분석
 - 2021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617.2조 원 중 598.5조 원을 연중에 집행하고, 연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18.7조 원이며 이 중 2022년 집행을 위해 4.2조 원을 이월한 뒤 남은 불용액 14.5조 원이고 불용률은 2.3%임
 - 2007년 이후 불용률의 추이를 보면, 2008년 4.1%에서 2012년 2.1%까지 낮아졌다가 2015년까지 4.1%로 상승한 이후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일부 재정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폭 증가한 상황

〈그림 1〉 연도별 불용액, 불용률 추이

(단위: 조 원, %)



- 2021년 불용액의 분야별 구성을 보면, 전체 불용규모의 40.4%를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4.0%를 차지하고, 통일·외교 분야가 전체 불용액의 10.2%를 차지
- 경제성질별 분류를 보면 2021년도 기준 이전 재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률을 기준으로 자산취득-상환지출-물건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불용사유에 따라 7개 유형으로 조정하여 불용사례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집행잔액(기타)’으로 입력

- 2014년 이후 불용유형 변경에 따라 연속적 분석을 위해 불용유형을 재조정하고, 세부사업별 가장 큰 불용액의 사유를 대표 불용사유로 활용

〈표 1〉 분석에서 사용한 불용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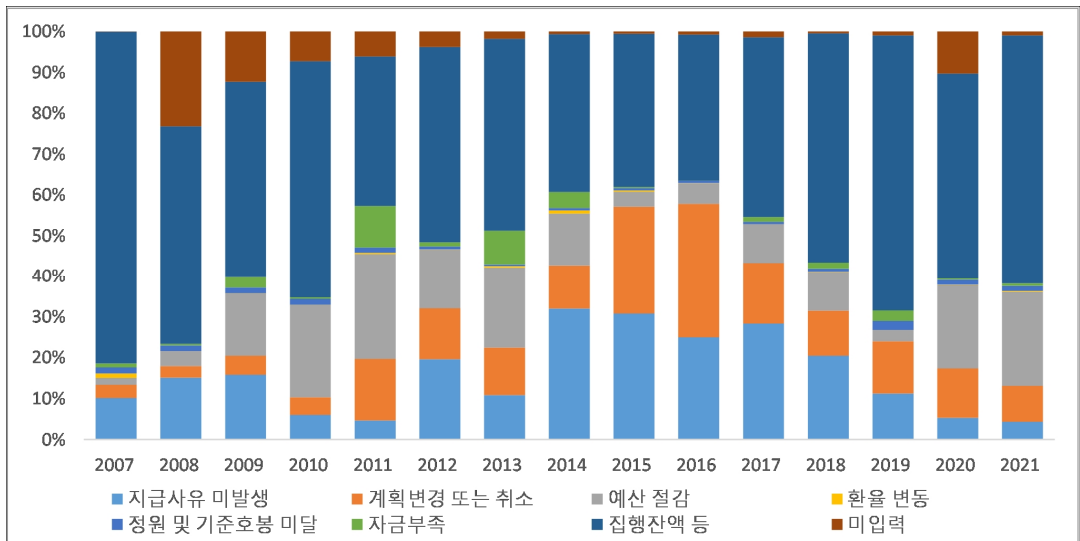
조정한 불용유형		2014~2021년		2007~2013년	
유형코드	불용유형	유형코드	불용유형	유형코드	불용유형
621	지급사유 미발생	611	지급사유 미발생	603	지급사유 미발생
622	계획변경 또는 취소	612	계획변경 또는 취소	601	계획변경 및 취소
623	예산 절감	613	예산 절감	604	예산 절감
624	환율 변동	614	환율 변동	606	환차로 인한세출감소
625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615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602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626	자금부족	616	자금부족	607	세수결함
627	집행잔액 등	617	내부거래	608	기타
		618	집행잔액 등	605	집행잔액

□ 전 기간('07~'21) 불용액 166.6조 원 중 '집행잔액'이 49.5%, '지급사유 미발생' 16.7%, '계획변경 또는 취소' 13.2%, '예산 절감' 12.7% 순

- 불용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미입력한 불용액은 전 기간 4.6%이며, 2020년에는 10% 가까이 되는 상황으로 나타남
 - 결산정보의 예산 환류 차원에서 성실한 정보입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그림 2〉 불용유형별 불용 비중 추이

(단위: %)



□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유형은 이전지출 성격이 강한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연구용역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건설보상비, 토지매입비, 융자금, 출자금 등에서 불용률이 10%를 초과(최대 31%)
- 일반출연사업의 경우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률(최대 36%)이 높으나,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불용률(최대 6%)이 낮음
- SOC 건설사업은 건설보상과 토지매입비의 불용률이 높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최대 41%) 또는 계획변경 또는 취소(최대 31%) 불용률이 높음
 - SOC 건설사업의 경우 외생적 요인(소송, 분쟁 등)에 따른 불용이 큰 상황이기에 재정집행점검관리 관리대상으로 관리 강화 필요

3 주요 불용 분석의 재정사업 집행패턴 분석

□ 재정사업 중 모든 불용사업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요 불용사업을 선정하여, 월 집행 패턴과 불용률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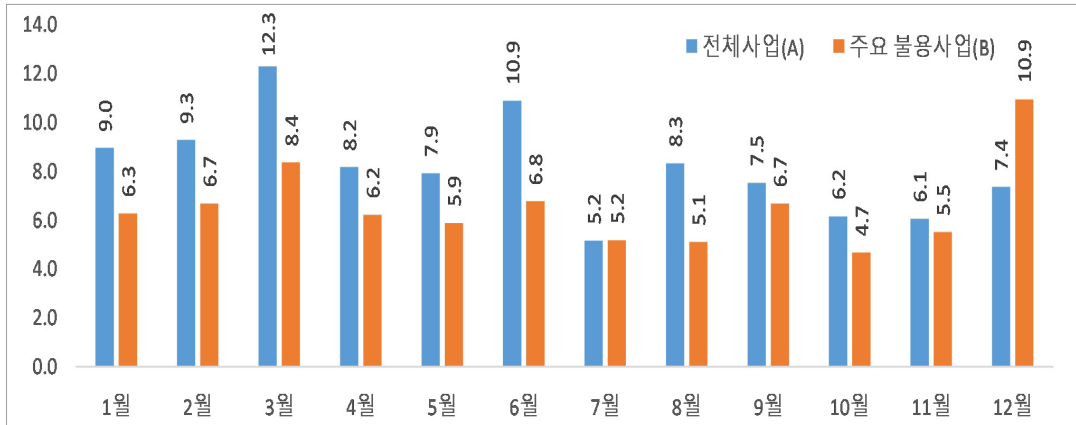
- 주요 불용사업은 재량지출 사업 중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며, 불용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의
 - 2021년 기준 2,389개 사업으로 전체 세부사업의 29.3%

□ 주요 불용사업의 월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연중 집행률이 낮고 연말 집행률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분석자료는 '14~'21년 dBrain 결산자료와 월 집행 병합자료를 활용
- 주요 불용사업의 집행패턴은 연말 집중집행으로 불용률 높아, 연중 집행관리를 통한 불용 최소화 필요
 - 주요 불용사업 상반기 집행률 40% < 전체 재정사업 56%

〈그림 3〉 2021년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률 추이

(단위: %)



- 주요 불용사업에서 불용은 민간이전, 융자금, 출자금 지출목에서 큰 규모로 발생
 - 2021년 세목단위 분석결과, 민간경상보조 불용률(26.4%)이 높았고, 소상공인 지원융자사업 등으로 기타민간융자금 불용 발생이 큼

〈표 2〉 2021년 지출목별 주요 불용사업의 불용액 및 불용률

(단위: 억 원, %)

지출목명		주요 불용사업		이외 사업		전체 사업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110	인건비	5,215	7.2	5,783	1.6	10,998	2.5
210	운영비	5,003	11.2	2,825	1.2	7,828	2.8
320	민간이전	22,777	25.1	9,773	0.8	32,550	2.4
450	융자금	45,276	24.9	2,927	0.9	48,203	9.2
460	출자금	6,602	38.1	5	0.0	6,60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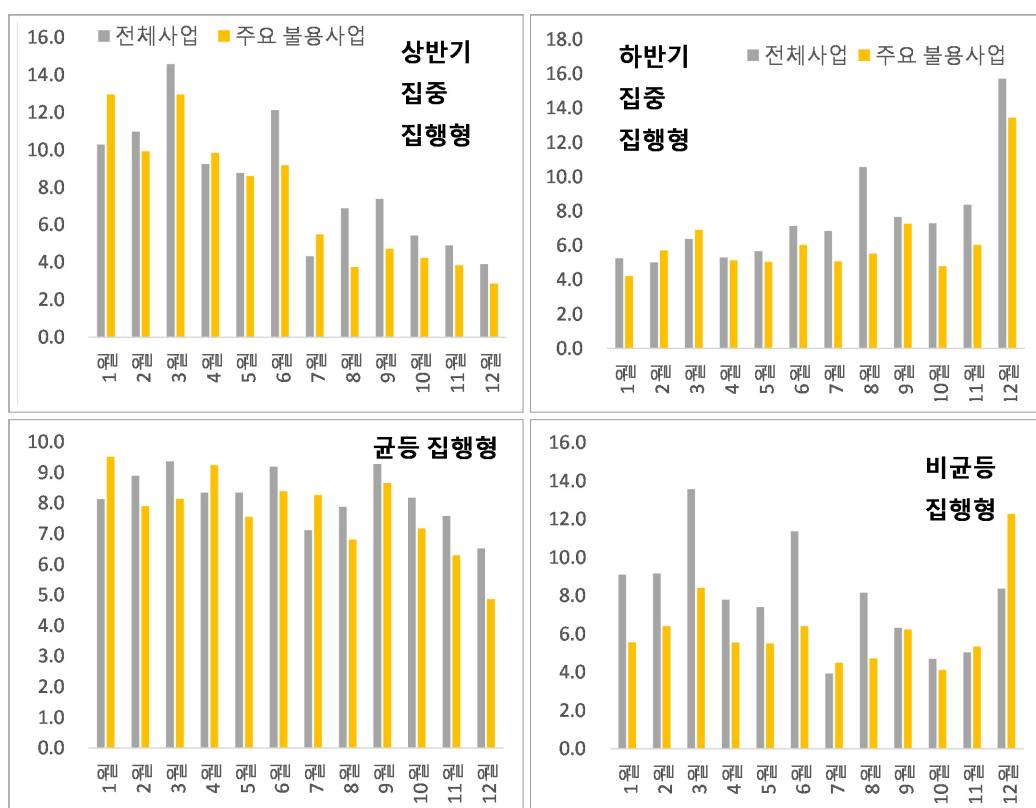
□ 주요 불용사업 집행패턴은 하반기 집중집행형의 집행 특성과 유사

- 집행패턴은 상반기 집행형, 하반기 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으로 설정하여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 분석
- 상반기 집행형은 전체 사업의 60%가 상반기 집행형인 반면, 주요 불용사업의 63%는 하반기 집행형 사업으로 분류
 - 상반기 집행형은 상반기 집행률이 하반기보다 큰 사업(하반기 집행형은 반대)으로 정의

- 연중 균등집행사업의 전체 사업의 17%를 차지하며, 주요 불용사업은 연중 균등 집행사업과의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연중 균등집행사업은 월별 집행률이 분기별로 $25\% \pm 12.5\%p$ 편차 범위 내로 유지
- 일회성 집행사업 중 주요 불용사업은 2%에 불과하여, 일회성 사업과 연관성 적음
 - 일회성 집행사업은 한 달에만 집행이 발생한 사업으로 정의

〈그림 4〉 집행패턴별 재정사업의 월별 집행률 추이 : 2021년

(단위: %)



□ 재정사업의 집행패턴과 집행률 변동성 지표(표준편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주요 불용사업은 하반기 집행형 사업과 가장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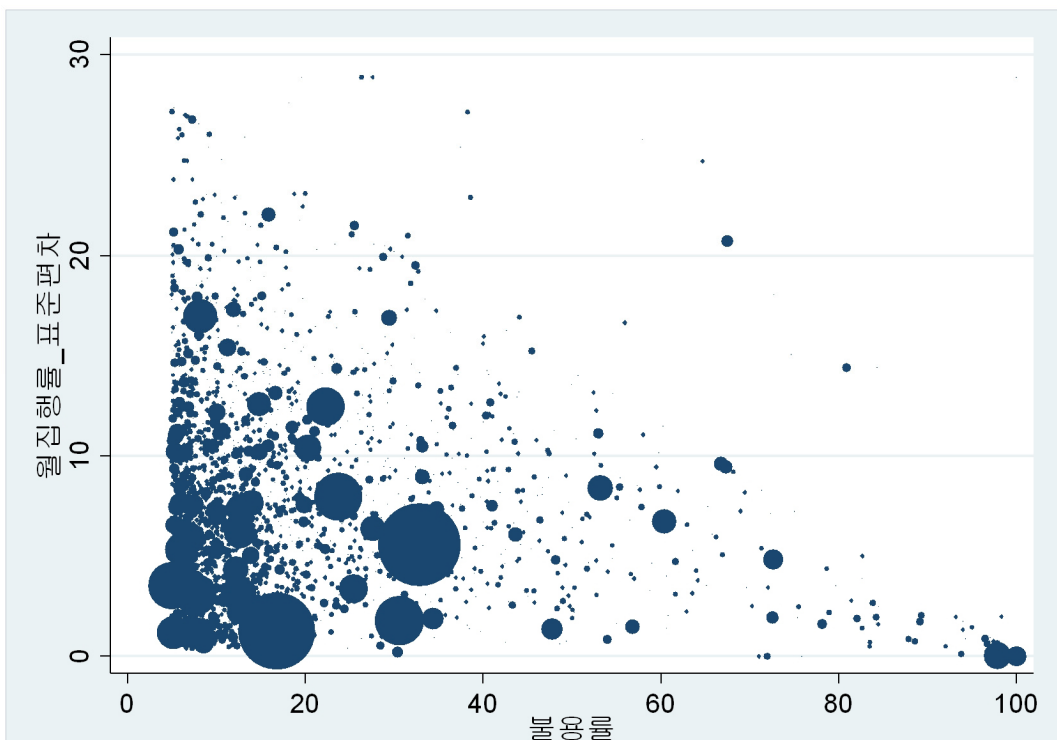
- 변동성을 분석한 이유는 재정집행은 회계연도 내에서 대부분 집행되므로 언제 더 집중적으로 집행하는가가 집행특징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

- t-test 검증을 통해 집행패턴에 따른 표준편차 간 차이 분석결과, 균등집행형인 경우 변동성(표준편차)이 가장 작고 일회성 집행형 사업의 변동성이 가장 큼
 - 일회성 집행형 26.16643 > 상반기 집행형 13.78629 > 하반기 집행형은 9.063929 > 균등집행형은 4.826698
- 주요 불용사업의 변동성 평균은 8.135249로 하반기 집행형 사업들의 월 집행률 패턴 특징과 유사

□ 주요 불용사업의 불용률과 월 집행률 표준편차의 상관관계는 산포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의 상관관계(2021년 -0.3059)

- 재정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월 집행률 표준편차가 10이내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불용률은 10~3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

〈그림 5〉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 표준편차와 불용률 산포도 : 2021년



□ 주요 불용사업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집행관리 시 활용

- 불용 관리 관점에서 주요 불용사업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의 29.3% 정도를 관리대상으로 축약
-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집행을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을 정보와 변동성 자료를 활용하여 집행특성을 부여하고, 관심대상 집중관리에 활용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

□ 집행을 제고 및 불용방지를 위해 신규사업 관리 필요

- 주요 불용사업 중 신규사업의 불용률(25.7%)은 계속사업 불용률 19.7%보다 높은 수준
-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착근을 위해서는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관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 필요

□ 집행정보와 결산 불용정보의 예산편성 과정 환류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재정관리 관점에서 불용액과 관련하여 예산-집행-결산 과정에서 근거하여 효율성 제고 필요
- 예산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을 검토하고, 집행단계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집행관리를 진행하며, 결산단계에서는 결산 보고서를 통해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의 불용액 관리를 실시

요약

I 서론

1. 분석 배경 및 목적	1
2. 분석 내용	2
3. 선행연구	3

II 재정사업 불용 현황

1. 불용 추이	11
가. 연도별 집행, 이월, 불용 추이	11
나. 분야별 불용규모 및 추이	13
다. 경제성질별 불용규모 및 추이	17
라. 회계·기금별 불용규모	19
2. 재정사업 불용사유	20
가. 불용유형	20
나. 재정사업의 불용유형 추이	24
다. 지출목별 불용유형별 불용률 분석	26

III 주요 불용 분석의 재정사업 집행패턴 분석

1. 주요 불용사업과 월 집행 추이	28
가. 주요 불용사업의 정의	28
나.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을 추이	30
다. 경제성질별 주요 불용사업 분석	33
2. 집행 변동성과 집행 분석	38
가. 집행패턴과 월별 집행 및 불용규모	38
나. 집행패턴과 변동성 관계 분석	43
다. 주요 불용사업의 집행 변동성과 불용률 분석 ..	48

C/O/N/T/E/N/T/S

●●● IV

효율적 집행관리 개선방안

1.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중 집행관리 필요 53
2. 집행을 제고 및 불용방지를 위한
신규사업 관리 필요 54
3. 집행정보와 결산 불용정보의
예산편성 환류 필요 55

●●●

참고문헌

●●●

부록

1. 2021년 특별회계별 집행 및 불용 현황 58
2. 2021년 기금별 집행 및 불용 현황 60

1 분석 배경 및 목적

예산의 불용은 어떠한 이유로 지출되지 못한 예산을 의미하며, 회계 운용 과정과 사업 추진 과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과정에서 예산의 집행 후 남은 불용이 발생하는 원인 중 대표적인 사유는 낙찰차액 발생, 예산절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2020년 이후는 코로나19로 인한 2019년까지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서 사업의 축소 진행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불용은 본래 사용되어야 할 재정사업에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또한 지출이 필요한 다른 재정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또한 더 나아가 지출되지 않은 만큼의 국고가 가져다주는 이자수익의 기회비용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회비용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불용을 줄이기 위한 유형 분석 및 집행관리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재정수요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쉽다.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한 재정수요를 현재의 재원상태로 충당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5.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재정수입 증가율 4.7%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재정의 지출효율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출효율화 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집행관리 측면에서 연례적인 불용사업이나 집행행태를 파악하는 것으로도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재정유형에 따른 집행행태가 명확하다면 이를 활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재정적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하였는데 코로나19 확장재정의 후폭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더 이상 확장재정 기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으며 경기위축으로 인하

여 세수의 감소 및 지출의 감축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의 증가를 기대하거나 지출검토(spending review)로 언급되고 있는 지출 효율화 작업 등을 통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 결산 작업에서 나타나는 불용액을 고려하여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불용 발생 유형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불용 발생 유형과 재정사업의 지출패턴을 분류하고, 집행 또는 예산편성단계에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dBrain+ 내의 집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용액 규모와 추이를 재정사업 유형별로 살펴본 다음 불용패턴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집행관리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분석 내용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dBrain 사용자들의 입력 정보 중 불용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여 향후 재정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최초의 재정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집행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불용사례를 통해 불용사유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불용유형은 8개인데,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정사업의 불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불용률 지표를 활용하여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dBrain 사용자가 정확한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dBrain 사유 입력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재정사업의 지출패턴은 재정사업의 성격과 사업 추진 환경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 예를 들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집행(교부)을 많이 하고, 건설사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을 하기도 하며, 태풍, 한파 등의 기후 요인과 소송과 같은 행정적 제한 요인 등이 집행을 제약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제약요인이 많으면 불용액이 커지고 불용률도 높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사업의 표준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그동안

의 재정사업의 월 집행 변동성을 고려하여 불용률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 선행연구

재정 불용액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불용 발생의 원인, 관리방안 등 불용관리 연구와 제도 및 정책에 따른 효과로 나타나는 불용액을 살펴보는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효율성 관점에서 불용액 발생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집행관리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불용액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불용 발생 원인과 관리방안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재정단계 안에서의 불용액에 대한 발생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 집행, 결산의 재정흐름에서 불용액에 대한 법적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했다. 먼저 예산단계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고, 각 연도 예산안의 편성 작성지침을 통해 과년도의 불용 실태를 반영한 예산을 작성하도록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3월에 발표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재정이출 재구조화 등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여력 확보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202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중 연례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이 나타나는 사업은 실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최근 실집행 실적에 따라 10%~50% 감축 조정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집행개선을 실시하는 중점 투자 방향을 세웠다.

〈표 1-1〉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내불용액 관련 내용

구 분	유형/목	세부지침 내용
사업 유형별	기본경비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실적 반영
	민간보조 사업	중앙관서의 장은 3년 이상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아래의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예산 요구 보조사업 지원규모 감축 가능성 검토 〈보조사업 정비기준〉 연례적 이월·불용 또는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절감 검토
목별	일반수용비(210-01목)	'21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전용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
	시험연구비(210-13목)	이·전용액, 불용액 등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 여 적정수준 계상
	일반법령출연금(350-01목, 350-02목) 연구개발출연금(360목)	출연금 사업은 이월·불용 현황 및 사유 등 집행실 적과 출연기관의 보유자산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다 음 연도 예산편성

자료: 기획재정부(2022b),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또한 5월에 발표한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기본경비 부분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설정했다. 민간보조 사업에서도 보조사업 정비기준 중 연례적 이월·불용 또는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조사업 지원규모의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각 중앙관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게 된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예산집행 시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일상적·경상적 경비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표 1-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내 불용액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I. 일반지침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예산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10. 정보화 관련 예산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자료: 기획재정부(2022a),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재정관리점검회의가 실시된다. 재정관리점검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는 기획재정부차관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기업 부사장으로 구성되며,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실태를 매월 확인·점검한다.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월별 집행실적과 함께 재정집행과 관련된 외부지적을 검토하고,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결산보고서의 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된다.

국가회계법 시행령은 국가회계법이 지시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의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에 따르면, 세입세출결산의 세출,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의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불용액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1-3〉 결산보고서의 작성 내용

구 분	세입/수입	세출/지출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자료: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예산순기에서 불용액과 관련된 법적 흐름을 살펴본 결과, 예산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시 전년도의 집행실적을 검토하고, 집행단계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관리를 진행하며, 결산단계에서는 결산보고서를 통해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의 불용액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변화로 인해 계획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 재원이 부족할 수 있고, 남을 수도 있게 된다. 이때, 예산의 효율적 자원배분 측면에서 법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불용액도 관리할 수 있다.

〈표 1-4〉 불용액 관련 법적 근거 규정

예 산	집 행	결 산
• 국가재정법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국가재정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가회계법 시행령
불용 등 집행실적을 반영한 예산작성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회계연도 내 발생한 불용규모 검토

자료: 저자 작성

불용률 발생의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한 연구들은 불용이 발생하는 재정사업의 특성, 또는 예산단계에서의 환경 등을 분석했다. 재정사업 특성에 따른 불용률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업유형, 사업규모, 정책유형별로 불용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장혜윤 외, 2019).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일반회계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각 사업별 불용률을 확인했다. 분석결과, 전체 사업,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 중에서도 집행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속집행제도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서 불용률이 낮았다. 또한 신속집행대상사업 중에서도 간접사업, 대규모 사업에서 불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사업의 집행관리를 실시하는 재정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이끄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더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불용액이라고 한다(김성주 외, 2020). 김성주 외(2020)에서는 불용액과 재정운용 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집행단계에서의 불용원인으로 지출계획의 ‘지출계획의 변경 및 취소’, ‘세출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지급(예비비 등)’,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을 원인으로 보았다. 나아가 불용의 원인에 대해 경제적 측면과 예산과정론적 측면에 대해 불용유형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원인의 불용은 경제적 비효율성과 예산과정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모두 존재하고, ‘지출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며, 예산과정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표 1-5〉 불용액과 재정운용 결과의 관계

예산단계	불용액 원인	경제적 접근	예산과정론적 접근
기획 및 편성	세출예산편성	합리적 의사결정의 배분 효율성	정치적 합의에 따른 배분효율성
집행단계	지출계획의 변경 및 취소	효율성	비효율성
	세출예산 절감	효율성	효율성
	지급사유 미지급 (예비비 등)	효율성/비효율성	효율성/비효율성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비효율성	비효율성

자료: 김성주 외(2020), 12p.

국회예산정책처(2022)의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서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5개년도 총지출 기준 집행실적을 통해 불용액을 살펴보았으며, 연례적으로 일부 집행이 부진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집행부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2021년도 재정사업에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했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예산 또는 사업수요 추계 등 부적정, 부지 미확보나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주민 반대 등에 따른 공사·사업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표 1-6〉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선정 기준

구 분	선정기준	
중앙정부 집행부진사업	가. 예산현액 대비	① 2021년 집행률 70% 미만 ② 2018~2021년(4년간) 집행률의 평균이 70% 미만
	나. 예산액 대비	① 2021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 이상이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 ② 2018~2021년(4년간) 집행률의 평균이 70% 미만
보조사업자 집행부진사업	① 중앙정부 기준 2018~2021년(4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이상이고, ② 보조사업자 기준 2018~2021년(4년간) 평균 실집행률과 2021년 실집행률이 미만	
(공통기준)	- 세부사업(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등 제외) 4년 평균 집행률 : 각 연도 집행률 평균	

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22), 93p.

또한 불용액 발생이 제도 및 정책의 비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산편성과 심의에서 정치적 목적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의 자료를 이용해 10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정권 연차에 따라 불용액 비율에 변화가 있는지 분석했다(김봉환 외, 2019). 분석결과,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정권 1년차에 불용액이 다른 연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가한 사업의 예산증가율이 높을수록 사업의 불용액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정부와 국회의 예산행태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으로 대변되는 불용액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의 전반적인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이 불용액 발생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양인용 외,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2011년을 기준으로 도입 전, 후의 불용액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 후 불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불용액 규모가 가장 큰 기금불용액에 대한 불용률이 감소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부처명이 지속해서 유지되는 계속부처의 불용액 발생형태에 따라 증가형, 변동형, 유지형, 감소형으로 소관부처를 나누고, 각 발생행태 유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산재무과목을 확인했다.

〈표 1-7〉 소관부처별 불용액 관련 예산재무과목

유형	소관부처	예산재무과목	순위
증가형	경찰청, 국방부, 문화재청,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통계청	400년대 자산취득 및 운용	1순위
		700년대 예비비	2순위
		600년대 전출금	3순위
변동형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법무부	400년대 자산취득 및 운용	1순위
		300년대 이전지출	2순위
		100년대 인건비	3순위
유지형	국세청, 국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년대 물건비	1순위
		100년대 인건비	2순위
감소형	감사원, 관세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대법원, 통일부, 헌법재판소	200년대 물건비	1순위
		100년대 인건비	2순위

자료: 양인용 외(2019), p.359 〈표 13〉

선행연구들을 통해 불용액 관리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 규정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단계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불용액의 원인과 제도 및 정책의 비효율에 따른 불용액 발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불용액의 관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관련이 있으며,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I

재정사업 불용 현황

1 불용 추이

불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12년도부터 '21년도 결산 dBrain+ 자료를 활용하여 불용 추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추이분석을 통해서 대략적인 불용액의 현황과 각 변수별 불용액 발생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추이분석에는 16대 분야별(예비비 제외), 전체 지출비목별로 간략히 집계하고 인건비와 같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사업, 출연사업, 출자사업은 주요 비목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불용유형별 규모 및 비중 분석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연도별 집행, 이월, 불용 추이

연도별 집행 가능 한도라고 볼 수 있는 예산현액은 집행액과 불용액, 이월액으로 구분한다. 예산현액에서 연중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를 하든지 차년도로 이월하여 차년도 예산으로 활용한다. 이하에서는 총지출 범위로 분석하였다. 2021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617.2조 원 중 598.5조 원을 연중에 집행하고, 연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18.7조 원이다. 이 중 2022년 집행을 위해 4.2조 원을 이월한 뒤 남은 불용액은 14.5조 원이다. 이는 불용률(=불용액/예산현액×100)로 보면, 2021년 2.3%이다.

총지출 재정사업의 집행률은 2007년 9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97.0%까지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9년으로 97.8%였고, 반면 가장 낮았던 해는 2013년 94.5%였다. 차년도 이월 규모는 2014년 6.8조 원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까지 2.5조 원으로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은 소폭 증가한 4.2조 원이다. 이월률은 이월 규모가 가장 컸던 2014년 1.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0.4%로 최소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1〉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추이

(단위: 조 원, %)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금액 B	집행률 B/A	금액 C	이월률 C/A	금액 D	불용률 D/A
2007	241.6	230.8	95.5	2.8	1.2	8.0	3.3
2008	267.9	254.4	95.0	3.0	1.1	11.1	4.1
2009	307.7	293.6	95.4	2.7	0.9	11.4	3.7
2010	296.7	282.0	95.0	4.5	1.5	10.2	3.4
2011	317.0	302.8	95.5	5.2	1.6	9.0	2.8
2012	333.8	321.0	96.2	5.8	1.7	7.0	2.1
2013	356.9	337.3	94.5	6.1	1.7	13.5	3.8
2014	365.8	347.7	95.1	6.8	1.8	11.3	3.1
2015	393.0	371.8	94.6	5.2	1.3	16.0	4.1
2016	404.0	384.6	95.2	4.4	1.1	14.9	3.7
2017	417.6	402.2	96.3	4.4	1.1	10.9	2.6
2018	442.2	427.5	96.7	3.7	0.8	11.0	2.5
2019	484.4	473.9	97.8	2.9	0.6	7.5	1.6
2020	562.4	549.5	97.7	2.5	0.4	10.3	1.8
2021	617.2	598.5	97.0	4.2	0.7	14.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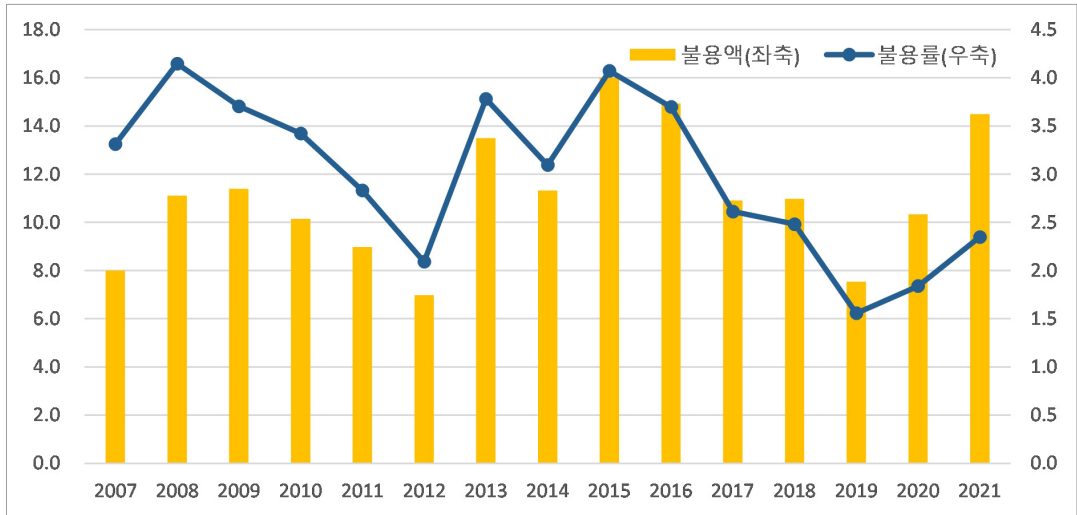
주: 총지출 기준 결산자료

자료: dBrain+

2007년 이후 불용률의 추이를 보면, 2008년 4.1%에서 2012년 2.1%까지 낮아졌다가 2015년까지 4.1%로 상승한 이후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일부 재정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폭 증가한 상황이다. 2021년은 2.3%의 불용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1〉 연도별 불용액, 불용률 추이

(단위: 조 원, %)



주: 총지출 기준 결산자료

자료: dBrain+

나. 분야별 불용규모 및 추이

재정사업은 부처의 정책 목표에 따라 다양한데, 이를 유형화한 것이 대표적으로 재정사업의 분야 분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16대 재정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재정사업 분야별 예산현액 규모는 2021년 결산기준 전체 예산현액 617.2조 원 가운데 사회복지가 195.5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지방행정 99.3조 원, 교육 77.8조 원, 국방 51.6조 원 등의 순이다. 가장 규모가 작은 분야는 예비비이고, 그 다음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이 5.3조 원으로 작은 분야이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점에서의 예비비 규모와 최종 예산현액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불용분석 부분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야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통일·외교 분야의 불용률이 25.6%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이다. 통일·외교 분야 예산현액 규모가 5.8조 원 수준에 비해 불용규모가 큰 이유는 대외 업무라는 특성상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여타 분야에 비해 집행률이 낮고, 반대로 불용률이 높다.

〈표 II-2〉 2021년 분야별 예산현액, 불용액 규모 비교

(단위: 조 원, %)

구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010	일반·지방행정	99.3	16.1	0.86	6.0	0.9
020	공공질서 및 안전	22.6	3.7	0.65	4.5	2.9
030	통일·외교	5.8	0.9	1.48	10.2	25.6
040	국방	51.6	8.4	0.82	5.7	1.6
050	교육	77.8	12.6	0.31	2.1	0.4
060	문화 및 관광	9.0	1.5	0.40	2.7	4.4
070	환경	10.9	1.8	0.40	2.8	3.7
080	사회복지	195.5	31.7	5.86	40.4	3.0
090	보건	27.3	4.4	0.16	1.1	0.6
100	농림수산	23.5	3.8	0.36	2.5	1.5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8.3	7.8	2.03	14.0	4.2
120	교통 및 물류	22.0	3.6	0.45	3.1	2.0
130	통신	8.6	1.4	0.41	2.8	4.7
140	국토 및 지역개발	5.3	0.9	0.14	0.9	2.5
150	과학기술	9.1	1.5	0.10	0.7	1.1
160	예비비	0.6	0.1	0.08	0.6	12.8
합계		617.2	100.0	14.5	100.0	2.3

주: 총지출 기준 결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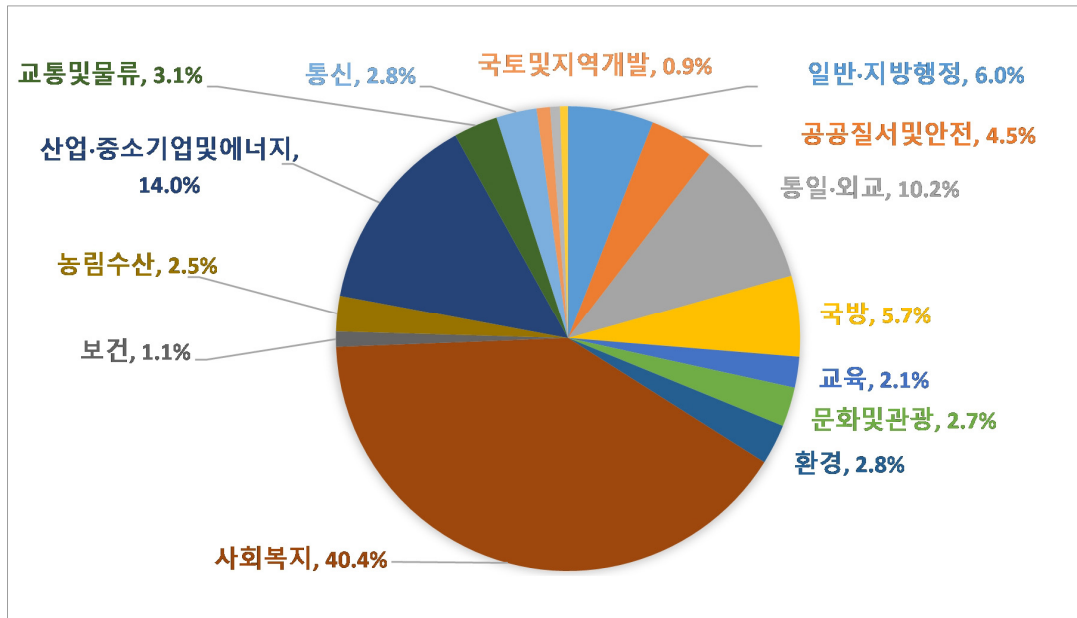
자료: dBrain+

2021년 불용액의 분야별 구성을 보면, 전체 불용규모의 40.4%를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불용률은 3.0%에 불과하나 예산규모(예산현액)가 195.5조 원으로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4.0%를 차지하고, 통일·외교 분야가 전체 불용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지방행정 6.0%, 국방 5.7% 등의 순이다.

불용액 규모가 가장 작은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로 0.1조 원 불용규모에 불과하며 전체 불용액의 0.7% 수준이다. 이유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당 부분이 사업 특성이 출연사업이라는 점에서 불용규모가 작은 특징이 있다. 출연금으로 출연기관에 교부가 되면 실행이 되지 않고 불용하더라도, 출연기관에서 국고에 반납하지 않는 이상 집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출연기관에서는 출연금 수입의 불용이 되더라도 회계상 차년도로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림 II-2〉 2021년 분야별 불용액 구성

(단위: %)



자료: dB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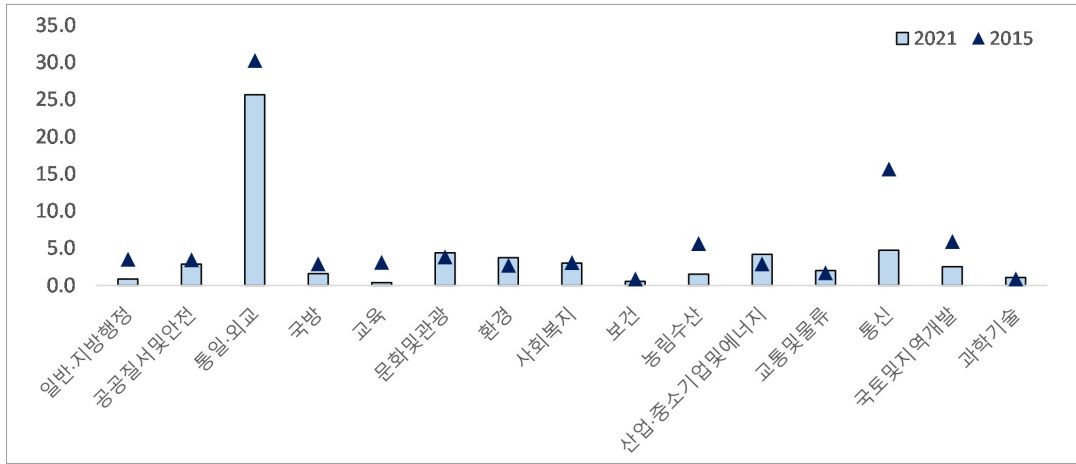
2021년 불용률을 2015년¹⁾과 비교하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분야의 불용률이 소폭 증가한 반면, 나머지 분야의 불용률은 감소하면서 전체 불용률은 1.7%p 감소하였다.

가장 불용률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로 같은 기간 1.3%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환경 분야 불용률이 1.0%p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0.6%p 교통 및 물류 분야가 0.3%p 증가하였다. 반면 불용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통신 분야로 같은 기간 불용률이 10.9%p 감소하였다. 다음은 통일·외교 분야가 같은 기간 불용률이 4.6%p 감소하였고, 농림수산 분야는 4.1%p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3.4%p 감소하였다.

1) 가장 불용률이 높았던 시점과 비교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용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그림 II-3〉 분야별 불용률 비교 : 2021년, 2015년

(단위: %)



주: 총지출 기준 결산자료이며, 예비비 불용률은 제외함

자료: dBrain+

〈표 II-3〉 분야별 불용률 추이

(단위: %)

연도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2007	1.5	2.3	12.9	3.5	0.4	4.3	2.4	4.7	1.5
2008	3.9	3.3	36.6	1.0	0.3	6.2	1.2	6.4	1.3
2009	1.9	3.7	33.6	1.0	0.8	5.2	0.6	6.9	0.6
2010	2.2	2.4	31.9	1.0	1.3	3.9	0.4	5.5	1.8
2011	1.1	2.0	29.3	1.8	0.1	1.7	3.1	5.0	2.0
2012	1.3	1.3	25.8	2.2	0.5	1.9	4.7	2.6	1.2
2013	1.8	2.2	24.6	3.7	1.6	4.1	6.5	3.2	1.0
2014	0.0	1.8	30.2	2.3	0.4	5.4	5.3	2.8	0.5
2015	3.5	3.5	30.3	2.9	3.1	3.8	2.7	3.1	0.9
2016	3.5	2.6	20.4	2.5	0.6	3.8	1.0	3.3	0.7
2017	1.5	1.7	26.9	2.0	0.3	2.5	0.8	2.5	1.9
2018	1.1	2.8	23.2	1.8	0.1	2.8	1.5	2.6	1.6
2019	0.6	3.1	22.4	1.8	0.3	3.0	1.7	1.1	1.4
2020	0.5	1.6	27.9	1.7	0.2	2.4	1.9	3.0	0.7
2021	0.9	2.9	25.6	1.6	0.4	4.4	3.7	3.0	0.6

주: 총지출 기준 결산자료이며, 예비비 불용률은 제외함

자료: dBrain+

〈표 II-4〉 분야별 불용률 추이(표 계속)

(단위: %)

연도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합계
2007	5.7	1.1	0.7	3.7	2.1	0.3	77.5	3.3
2008	5.4	1.0	1.1	3.0	1.6	0.3	81.4	4.1
2009	6.6	1.1	1.0	3.2	0.8	0.2	72.8	3.7
2010	4.8	1.3	2.8	3.0	2.9	0.2	52.2	3.4
2011	1.8	1.4	6.6	2.5	0.6	0.3	3.2	2.8
2012	2.8	0.8	0.8	1.5	1.4	1.1	41.0	2.1
2013	6.4	1.7	7.1	2.3	8.9	3.2	77.7	3.8
2014	7.0	2.9	4.4	10.6	5.9	1.6	75.3	3.1
2015	5.6	2.9	1.7	15.6	5.9	0.9	76.5	4.1
2016	6.0	0.6	3.6	18.4	3.1	0.8	79.5	3.7
2017	3.6	0.8	1.7	12.2	1.9	0.9	73.8	2.6
2018	5.5	0.5	1.8	12.7	0.7	1.2	62.6	2.5
2019	2.7	0.8	1.3	6.6	1.4	1.0	33.9	1.6
2020	0.9	0.3	1.0	3.5	1.3	0.8	9.9	1.8
2021	1.5	4.2	2.0	4.7	2.5	1.1	12.8	2.3

주: 총지출 기준 결산자료이며, 예비비 불용률은 제외함

자료: dBrain+

다. 경제성질별 불용규모 및 추이

재정사업의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는 것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쉽도록 예산항목의 경제적 성질을 기준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건비, 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 이전지출, 인건비, 자산취득 등 6개 항목으로 성질을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표 2-4〉는 2021년도의 경제성질별 예산현액과 불용액과 규모와 불용률을 집계한 것이다. 2021년도의 총 불용액은 14.5조 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총지출 617.2조 원 기준 불용률은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재정의 특성상 이전 재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률을 기준으로는 자산취득-상환지출-물건비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5〉 2021년 경제성질별 예산현액, 불용액 규모 비교

(단위: 조 원, %)

구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물건비	32.2	5.2	1.2	8.3	3.7
상환지출	17.0	2.8	0.8	5.3	4.5
예비비 및 기타	10.4	1.7	0.1	0.8	1.1
이전지출	418.2	67.6	4.9	33.8	1.2
인건비	43.8	7.1	1.1	7.6	2.5
자산취득	97.1	15.7	6.4	44.2	6.6
합계	617.2	100.0	14.5	100.0	2.3

자료: dBrain+

〈표 2-5〉는 경제성질별 불용률을 2012~2021년도 기간의 연도별 추이를 집계한 것이다. 연도가 지나갈수록 대체적으로 경제성질별 불용률이 비교적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예비비는 그 경제성질 특성상 불용률이 높을 때는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표 II-6〉 경제성질별 불용률 추이

(단위: %)

연도	물건비	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	이전지출	인건비	자산취득
2012	2.4	3.1	11.5	1.4	0.8	4.2
2013	4.4	3.6	25.7	2.4	1.0	8.2
2014	3.9	3.2	35.9	1.9	1.3	6.1
2015	9.6	9.2	48.2	2.0	3.0	6.5
2016	3.9	11.3	49.2	2.0	2.4	6.1
2017	3.1	8.1	45.4	1.4	1.5	4.1
2018	2.9	7.6	25.4	1.7	2.1	3.5
2019	2.9	2.1	10.1	1.2	2.6	1.8
2020	4.2	0.7	1.5	1.4	1.4	3.5
2021	3.7	4.5	1.1	1.2	2.5	6.6

자료: dBrain+

라. 회계·기금별 불용규모

2021년 기준 불용액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전체 불용액 14.5조원 중 기금 불용액이 9.3조원으로 64.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회계는 3.7조원으로 25.4%, 특별회계는 1.5조원으로 10.6%이다. 반면 이월액 규모는 일반회계(2.6조원), 특별회계(1.3조원), 기금(0.3조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월률로 보면, 특별회계가 2.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7〉 회계·기금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 2021년 기준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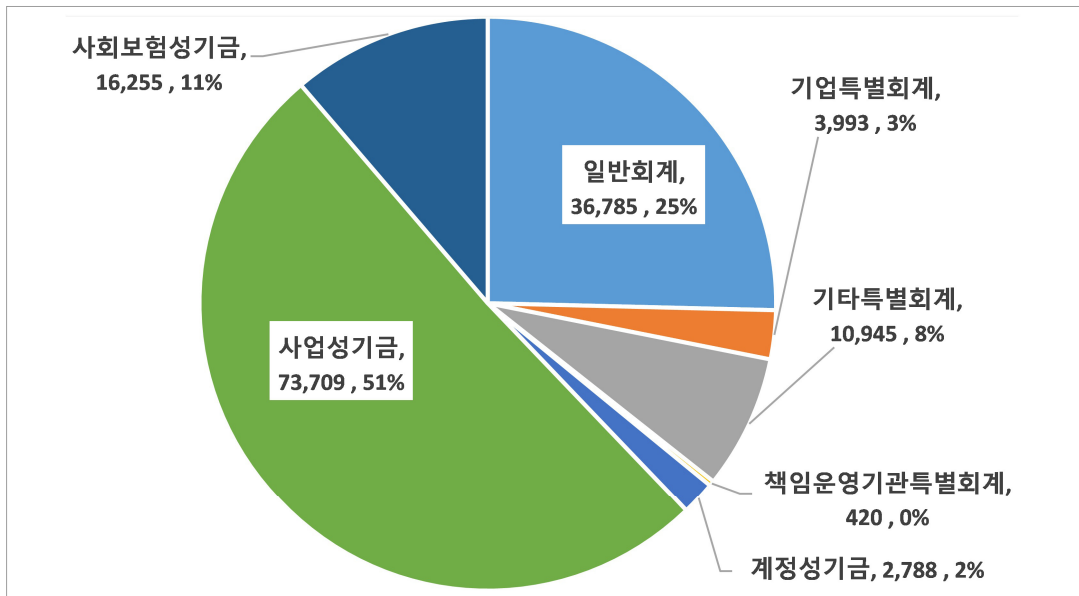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금액 B	집행률 B/A	금액 C	불용률 C/A	금액 D	이월률 D/A
일반회계	346.1	339.7	98.2	3.7	1.1	2.6	0.8
특별회계	62.0	59.1	95.5	1.5	2.5	1.3	2.1
기금	209.2	199.6	95.4	9.3	4.4	0.3	0.2
총합계	617.2	598.5	97.0	14.5	2.3	4.2	0.7

자료: dBrain+

회계·기금 성격에 따른 불용액의 구성을 보면, 사업성기금에서 전체 불용규모의 51%인 7조 3,709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가 전체 불용액의 25%로 3조 6,785억원이었고, 사회보험성기금은 11% 규모이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기타특별회계가 1조 945억원으로 약 8%, 기업 특별회계가 3,993억원으로 약 3% 불용액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4〉 회계·기금 성격별 불용액 구성 : 2021년 기준

(단위: 억 원, %)



주: 총지출 기준 결산자료

자료: dBrain+

2 재정사업 불용사유

재정사업의 불용사유는 dBrain 자료상으로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사업은 8,000여개 이상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지출 성격에 따라 목·세목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요인들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미집행 즉, 불용이다. 따라서 불용사유는 정말 다양하며,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우선 dBrain의 불용유형을 살펴보고, 불용유형별 불용액 추이와 사유를 분석한다.

가. 불용유형

dBrain 사용자는 결산과정에서 집행 후 사용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 불용사유를 입력한다. 불용사유는 2021년 결산시점에서는 불용사유를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8개의 불용유형은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또는 취소’, ‘예산 절감’, ‘환율 변동’,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자금부족’, ‘내부거래’, ‘집행잔액 등’이다.

다만, 사용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도 존재하였는데, 그해 집행유형코드를 잘 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불용사유로 ‘608 기타’로 입력되었거나, 2007년 ‘510 기타’로 입력된 사례가 있었다. 두 해 모두 입력 가능한 코드 이외의 코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유에 대한 코드 미스매치일 뿐 불용액의 오류는 발견할 수 없었다.

〈표 II-8〉 dBrain 불용유형과 유형코드

2007~2013년		2014~2021년	
유형코드	불용유형	유형코드	불용유형
601	계획변경 및 취소	611	지급사유 미발생
602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612	계획변경 또는 취소
603	지급사유 미발생	613	예산 절감
604	예산 절감	614	환율 변동
605	집행잔액	615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606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	616	자금부족
607	세수결함	617	내부거래
608	기타	618	집행잔액 등

자료: dBrain+

사업의 불용사유는 개별 사업에도 여러 사유가 있게 마련이다. 재정사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부사업의 경우에도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게 되면, 불용사유도 여러 부서에서 입력하게 되므로, 입력 유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2021년 ‘경찰청 경찰서 청사 시설 신축’ 세부사업의 경우, 불용사유가 설계용역기간 지연으로 감리용역 발주 계획 변경, 불용, 감리 미계약으로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612 계획변경 또는 취소’와 ‘611 지급사유 미발생’, ‘618 집행잔액 등’의 복합적인 불용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세부사업별·세목별로 복합적인 유형이 있는 경우 불용유형 분석이 어렵게 된다. 이에 본 분석과정에서는 다수의 불용유형을 불용액이 가장 많은 사유를 대표 불용유형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2021년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

설 신축' 감리비 불용사유는 세 개의 불용사유가 있었으나,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612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불용유형별 재정사업의 집행관리 실증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 II-9〉 불용유형과 불용사유 예시

불용유형	불용사유(일부 예시)
계획변경 및 취소	2.5GHz 대역 사업허가 탈락으로 주파수 경매 무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용실적이 낮았음 각종 국제회의, 행사 연기/취소 등으로 수용비, 여비 등 불용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신규교육생 인원 당초 계획 미달 운영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과 채용응시자 없음 결원에 의한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1차 시험조사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국제기구 분담금 미사용액 따른 불용 4차에 걸쳐 공모사업을 진행했으나 수요부족으로 미지급액 발생
예산 절감	현지항공사 이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권 구매 경상경비 10% 절감 및 집행잔액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발생
집행잔액	교육 축소에 따른 잔액 발생 가족사랑의 날 시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가스요금 인하로 지출 감소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 환율변동	국제기구 설립지연 및 환율인하 환차 및 귀부임 시차에 따른 세출감소
세수결함	세수부족 세수결함으로 관서업무비 집행동결 세수부족으로 인한 사업수요 감소
기타	미배정으로 인한 불용 처리 사업지연 및 사업수익률 하락 지급방식 변경(수입에서 반환처리)
자금부족	자금 부족에 따라 사업대상자 미선정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부족 실집행 부진분에 대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불용
내부거래	집행잔액 책임운영기관 총세입 달성을 위한 자체절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불용

자료: dBrain+

dBrain에서는 불용사유를 매년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사용 하던 불용유형은 2014년 이후 불용코드의 변경이 있었다. 불용유형코드의 변경과 사 유 명칭에 대한 변화는 다소 있었으나, 기존의 사유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불용유 형이 불용이 발생한 이유를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선택 입력하는 형태라면 불용사 유는 오픈형 문항으로 담당자가 직접 상세한 사유를 부가적으로 입력하는 형태이다.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불용사유와 목록에서 선택하는 불용유형을 비교함으로써 기 간별로 약간 상이한 불용유형코드를 조정하였다. 조정 기준은 첫째, 2021년 현재의 불용유형 코드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불용유형명이 동일한 경우는 그대로 사 용하였다. 셋째, 코드명이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다면 지속성이 있는 유형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집행잔액, 기타 등의 불용유형은 사용자들도 무차별하게 사용하는 유형으로 인식함에 따라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집행잔액을 기타 사유로 인식하고 입 력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 II-10〉 분석에서 사용한 불용유형

조정한 불용유형		2014~2021년		2007~2013년	
유형코드	불용유형	유형코드	불용유형	유형코드	불용유형
621	지급사유 미발생	611	지급사유 미발생	603	지급사유 미발생
622	계획변경 또는 취소	612	계획변경 또는 취소	601	계획변경 및 취소
623	예산 절감	613	예산 절감	604	예산 절감
624	환율 변동	614	환율 변동	606	환차로 인한세출감소
625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615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602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626	자금부족	616	자금부족	607	세수결함
627	집행잔액 등	617	내부거래	608	기타
		618	집행잔액 등	605	집행잔액

불용유형은 하나의 세부사업에 복수로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의 용 이함을 위해 불용유형을 세부사업의 세목별 대표 불용유형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었 다. 실제 불용사유를 입력한 재정정보를 분석해 보면, 하나의 세부사업에도 다수의 불 용사유가 존재하고, 세목별로도 불용사유가 상이하고 복수의 사유가 입력되어 있다. 이유는 하나의 세부사업하에서라도 실무적으로는 복수의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어 불 용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목은 경제적 성질에 따라 분

류한 체계이므로 목·세목의 항목 특성별로 불용사유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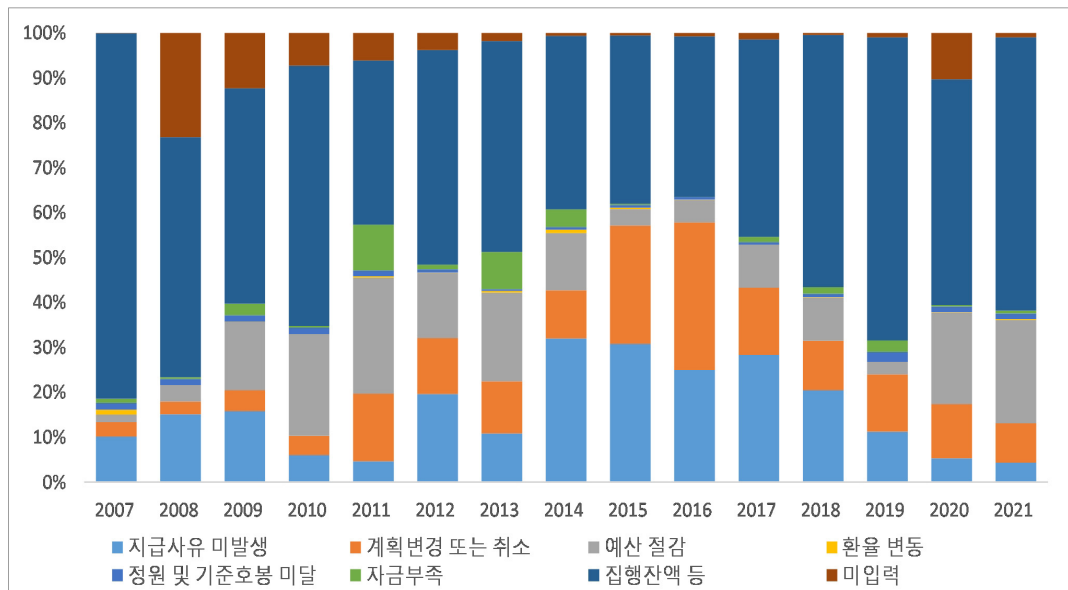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용유형 분석을 위해서 재정사업의 세부사업 내에서 세목별 대표 불용유형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대표 불용유형은 가장 불용금액이 큰 불용유형으로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세목 내에서 예산 절감 10억 원이 불용되었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7억 원일 때, 대표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정의 대표 불용유형 없이는 이후 분석이 불가능하기에 도입한 방안임을 양해하기 바란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실제 담당자들이 작성한 불용사유는 15개 항목이 넘는다.

나. 재정사업의 불용유형 추이

재정사업의 불용이 발생하는 사유에 따른 불용액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불용유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7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불용사유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불용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미입력을 통해서도 왜 사유를 누락시키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그림 II-5〉 불용유형별 불용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dBrain+ 활용 저자 작성.

2007년부터 2021년 동안의 불용유형별 합계 166.6조 원의 불용액에 대한 비중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유형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었다. 다음으로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7.8조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6.7%였으며, ‘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13.2%인 21.9조 원, ‘예산 절감’ 사유의 불용액이 21.1조 원으로 12.7%이다. ‘환율변동’,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자금부족’의 사유의 불용률은 각각 2% 이내로 적은 금액이다.

연도별 불용유형별 불용액 비중의 변화를 보면, 2014년 이후에는 ‘지급사유 미발생’ 유형의 불용액이 감소하고, ‘집행잔액’의 불용액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이후에는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을 효율화하는 방식의 결과, 불용액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불용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즉 불용사유를 ‘미입력’한 불용액은 전 기간 4.6%나 되며, 2020년에는 10%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이는 dBrain 사용자가 결산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용유형을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성실한 정보입력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산정보가 단순히 결산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예산편성 시 환류될 수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다소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또한, 불용사유를 입력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부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하 불용사유에 대한 해석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II-11〉 연도별 불용유형별 불용액 비교

(단위: 억 원, %)

연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또는 취소	예산 절감	환율 변동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자금부족	집행잔액 등	미입력	합계
2007	8,109	2,550	1,369	873	1,176	791	65,081	77	80,027
2008	16,741	3,143	4,108	2	1,525	382	59,345	25,834	111,079
2009	18,011	5,279	17,390	8	1,665	2,926	54,674	14,031	113,985
2010	6,109	4,335	22,851	82	1,483	414	58,864	7,399	101,537
2011	4,191	13,446	23,184	287	1,140	9,171	32,784	5,493	89,697
2012	13,670	8,706	10,168	27	518	699	33,356	2,679	69,822
2013	14,637	15,605	26,678	526	447	11,275	63,328	2,453	134,950
2014	36,201	12,092	14,490	842	671	4,459	43,679	784	113,219
2015	49,165	42,204	5,849	557	892	440	59,928	979	160,014

연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또는 취소	예산 절감	환율 변동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자금부족	집행잔액 등	미입력	합계
2016	37,260	49,065	7,553	87	889	4	53,321	1,193	149,370
2017	30,859	16,300	10,451	36	620	1,273	47,897	1,609	109,045
2018	22,405	12,143	10,594	39	802	1,605	61,622	543	109,753
2019	8,440	9,645	2,097	5	1,629	1,948	50,878	740	75,382
2020	5,448	12,467	21,161	57	1,220	351	52,015	10,664	103,381
2021	6,291	12,684	33,314	332	1,694	955	88,187	1,438	144,894
전 기간 합계	277,537	219,663	211,256	3,760	16,370	36,694	824,959	75,916	1,666,155
비중	16.7	13.2	12.7	0.2	1.0	2.2	49.5	4.6	100.0

주: 비중은 전 기간(2007년~2021년) 대표 불용유형별 불용액의 합계를 의미함

자료: dBrain+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불용유형을 조정하여 작성

다. 지출목별 불용유형별 불용률 분석

재정정보 중에서 지출목은 재정지출의 경제적 성질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출목별 불용률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사업 유형 또는 특성에 따라 불용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전지출 성격이 강한 재정사업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유형의 불용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구용역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건설보상비, 토지매입비, 융자금, 출자금 등에서 불용률이 10%를 초과하고 있다. 토지매입비의 경우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률이 3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둘째, 일반출연사업의 경우 ‘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불용률(최대 36%)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출연금 사업 중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는 불용률(최대 6%)이 낮은 수준이다.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대부분 R&D 사업의 자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집행률의 변동성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SOC 건설사업은 ‘지급사유 미발생’ 유형의 불용률이 최대 41%이며, ‘계획변경 또는 취소’ 유형의 불용률이 최대 31%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보상비와 토지매입비의 불용률이 높는데, 이는 SOC 건설사업의 성격상 외생적 요인(소송, 분쟁 등)에 따른 불용이 큰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정사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불용최소화를 위해서는 재정집행점검관리제도 내에서 주요 관리대상으로 집행률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표 II-12〉 지출목별 불용유형별 불용률 비교: 전 기간 합계

(단위: 억 원, %)

지출 목	불용유형								전체 사업 불용률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또는 취소	예산 절감	환율 변동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자금 부족	집행잔액 등	미입력	
인건비	3.3	0.6	2.1	3.0	2.9	12.4	2.0	2.9	2.1
운영비	9.4	3.3	4.0	2.8	0.5	7.3	2.9	8.5	3.7
여비	10.5	17.8	11.6	2.8	1.8	27.4	8.6	11.0	9.3
특수활동비	6.4	4.8	6.7	0.9	1.5		4.2		4.3
업무추진비	5.7	5.8	7.0	4.6	1.9	2.5	6.1	8.3	5.9
직무수행경비	1.3	3.6	2.0	6.7	2.1	10.2	1.5	5.0	1.5
연구개발비	8.6	19.3	7.8	3.7	6.5	8.6	4.2	5.3	4.5
연구용역비	20.5	21.5	3.6		17.8	7.3	3.9	8.2	3.2
안보비							6.7		6.7
보전금	4.0	7.2	4.9	4.9	3.3	4.9	3.1	15.7	2.0
민간이전	18.1	8.4	9.6	0.4	10.2	7.7	4.2	2.7	3.9
자치단체이전	10.8	5.4	7.0	2.6	0.5	1.0	3.5	3.2	0.6
해외이전	59.6	34.3	12.5	3.3		72.8	13.9	2.9	7.6
일반출연금	5.3	36.4	1.2		3.1	100.0	2.4		0.8
출연금	4.9	14.8	3.7	0.0	0.9	15.8	7.3	2.2	1.3
연구개발출연금	4.3	1.2	6.9	0.3	2.1	0.4	3.5	3.9	0.4
건설보상비	29.3	41.7				5.5	2.9	5.8	2.3
토지매입비	31.1	32.1	3.3			38.0	6.4	16.6	4.4
건설비	9.3	8.3	6.5	5.8		21.2	4.9	23.9	4.8
유형자산	3.9	9.5	5.1	1.7	0.1	5.2	1.8	22.7	2.3
무형고정자산			5.2				60.3		14.4
무형자산	26.7	31.7	9.1			100.0	13.2	27.0	11.4
융자금	16.6	18.4	5.4			17.0	8.7	12.3	6.8
출자금	13.1	55.5	15.4			27.9	6.0	10.0	5.3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0.0
지분취득비		3.3					0.2		0.4
상환지출	2.6	3.6	4.2	25.0			-3.3	8.2	4.7
전출금 등	69.0	94.3					6.6		8.2
예비비 및 기타	60.9	76.5	6.2			1.8	50.8	20.3	53.5

자료: dBrain+

III

주요 불용 분석의 재정사업 집행패턴 분석

3장에서는 재정사업 중 모든 불용사업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불용사업을 선정하고, 월 집행 패턴과 불용률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불용은 계획한 사업 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잔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행패턴 분석을 통해서 불용과의 관계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주요 불용사업과 월 집행 추이

가. 주요 불용사업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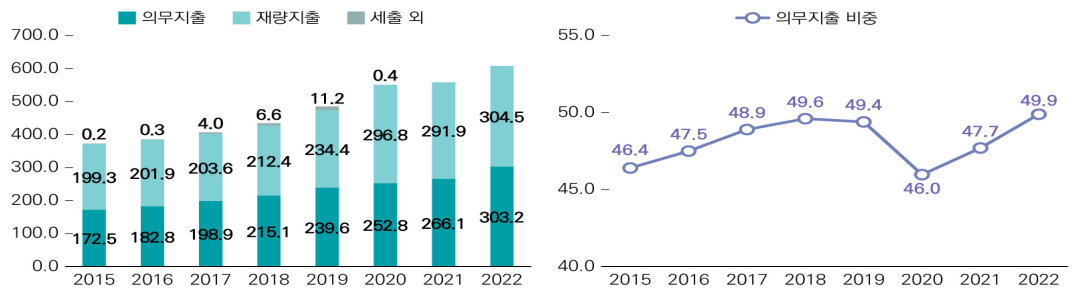
우선 어떠한 사업을 주요 불용사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주요 불용사업에 대한 기준은 선행연구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기에 분석대상을 자체적 기준으로 설정해 보았다.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7~8,000여 개나 되어 모든 사업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으며, 불용규모가 작거나 집행규모가 작은 사업은 분석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주요 불용사업을 정하였다. 첫째, 재정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 수는 5,881개로 전체 세부사업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52.5%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두 번째 기준은 불용규모이다. 불용규모는 전체 예산 대비 불용비율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부사업의 불용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느 정도의 예산 불용규모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으나, 그 기준을 설정하기란 쉽지 않은 사항이다.

세 번째 기준은 재량지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는 지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불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의무지출 사업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며,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재량지출로 규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7조). 의무지출 사업 재정규모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5년 46.4%에서 2022년 49.9%로 증가하는 등 전체 재정규모의 절반 정도이다. 최근 5년간 의무지출 사업의 불용률을 재량지출 사업 불용률과 비교하면, 의무지출 불용률은 1.1%로 재량지출 3.1%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이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관리 부진에 따른 예산의 불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Ⅲ-1〉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 원, %)



주: 2020년까지 결산, 2021, 2022년 본예산 기준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22), p.29. 〈그림 3-5〉.

〈표 Ⅲ-1〉 최근 5년 의무·재량지출 사업의 불용률

(단위: 조 원, %)

구분(연도)	재량지출				의무지출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2017	215.6	203.4	7.9	3.7	202.0	198.9	3.0	1.5
2018	223.8	213.1	7.1	3.2	218.4	214.4	3.8	1.8
2019	242.8	234.4	5.7	2.3	241.6	239.6	1.9	0.8
2020	306.9	296.8	7.7	2.5	255.5	252.8	2.7	1.0
2021	335.8	319.0	12.7	3.8	281.4	279.5	1.8	0.6
최근 5년 평균	265.0	253.3	8.2	3.1	239.8	237.0	2.6	1.1

자료: dBrain+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불용사업 분석대상을 종합적으로 보면, 분석대상 세부사업의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2,389개로 전체 세부사업(8,151개)의 29.3%이다. 지출규모로 보면 주요 불용사업의 재정규모는 2013년을 제외하면 전체 총지출의 4~8%대를 보이고 있다. 2021년의 주요 불용사업의 규모는 40.7%로 총지출 598.5조 원 대비 6.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불용사업 수와 불용사업의 지출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불용사업의 규모는 작더라도 전체 사업 수는 크기 때문에, 세부사업 평균 불용규모는 전체 사업평균을 하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불용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2021년 기준 합계 279.5조 원 규모의 150여 개 의무지출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세부사업당 평균 지출규모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 주요 불용사업 분석대상

(단위: 개, 조 원, %)

연도	사업 수			재정지출 규모		
	전체 재정사업	주요 불용사업	비중	전체 재정사업	주요 불용사업	비중
2014	8,689	2,427	27.9	347.7	29.0	8.4
2015	8,488	1,980	23.3	371.8	25.1	6.7
2016	7,377	1,868	25.3	384.6	26.4	6.9
2017	8,187	1,949	23.8	402.2	18.8	4.7
2018	7,319	1,714	23.4	427.5	22.7	5.3
2019	7,543	1,519	20.1	473.9	20.2	4.3
2020	7,983	2,153	27.0	549.5	29.2	5.3
2021	8,151	2,389	29.3	598.5	40.7	6.8

자료: dBrain+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한 것으로 실제 세부사업 수와 다를 수 있음

나.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률 추이

주요 불용사업의 월별 집행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사업의 월 평균 집행률과 주요 불용사업의 월 평균 집행률을 비교한 결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사업에는 주요 불용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이전까지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요 불용사업의 집행패턴은 연말 집중집행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상반기 동안 차이는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재정사업의 경우 2021년 집행률이 57.5% 집행된 가운데, 주요 불용사업의 경우는 상반기 집행률이 40.2% 수준이라는 점이다. 월별로 보면, 3월, 6월, 8월에 전체 사업과 주요 불용사업 간 월 집행률 차이가 크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사업이 해당 월에 집행이 많은 반면 주요 불용사업은 월별로 집행 편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보더라도 주요 불용사업의 월별 집행패턴은 2021년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지속되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요 불용사업은 연중 집행률이 낮다가 12월에 집중집행하는 사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중 집행을 관리를 통해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사업별로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겠으나 다수의 사업이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면, 집행관리대상사업만이라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3〉 2021년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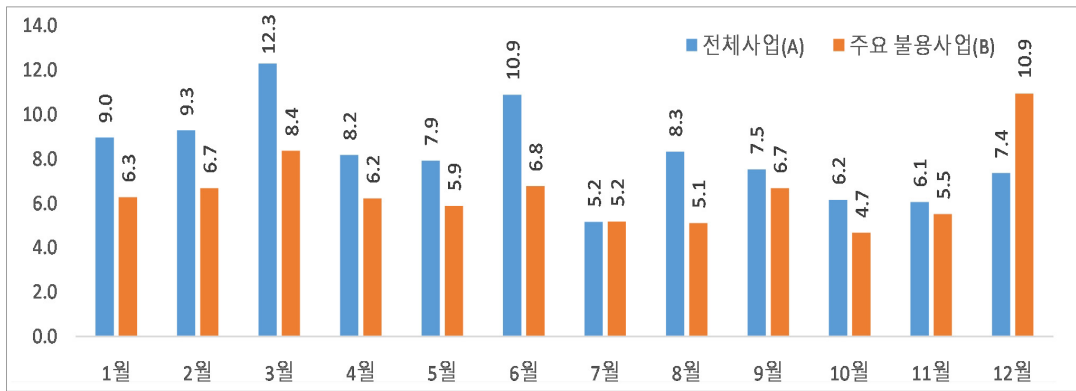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년	전체 사업 (A)	8.7	9.1	12.0	8.0	7.8	10.5	5.2	8.0	7.5	6.0	6.0	7.7
	불용사업 (B)	6.4	6.7	8.3	6.4	5.9	6.8	5.2	5.1	6.5	4.7	5.5	10.6
	차이 (B-A)	-2.4	-2.3	-3.7	-1.6	-1.9	-3.8	0.1	-2.9	-0.9	-1.4	-0.5	3.0
2014~2021년	전체 사업 (A)	8.5	8.8	11.8	8.5	7.8	10.5	6.6	6.7	8.5	6.4	5.6	7.2
	불용사업 (B)	4.8	6.0	8.3	6.0	5.5	7.6	4.6	5.2	5.9	5.1	5.8	11.3
	차이 (B-A)	-3.7	-2.8	-3.5	-2.5	-2.3	-2.9	-2.0	-1.6	-2.6	-1.3	0.2	4.1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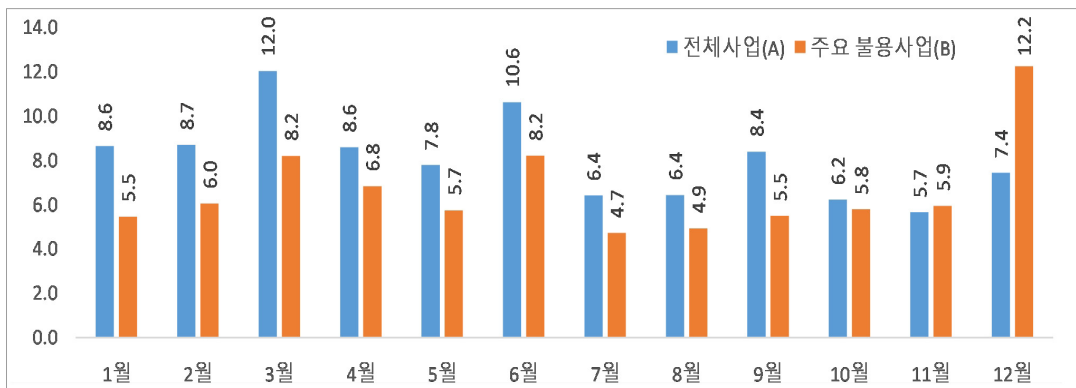
〈그림 Ⅲ-2〉 2021년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률 추이

(단위: %)



자료: 저자작성

〈그림 Ⅲ-3〉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률 추이 : 2014~2021년 평균



자료: 저자작성

〈표 Ⅲ-4〉 연도별 주요 불용사업의 월별 집행률 추이

(단위: %)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5.6	6.8	7.8	7.3	6.9	9.2	5.2	5.5	5.8	6.1	5.8	9.9
2015	4.7	6.9	7.8	7.1	5.6	6.9	5.4	6.2	6.2	5.8	6.0	8.8
2016	5.3	3.4	11.2	5.8	5.8	7.2	5.9	5.8	5.8	5.6	7.9	8.8
2017	2.5	3.5	14.2	2.9	3.8	12.3	3.9	4.2	12.3	3.2	3.4	4.4
2018	4.8	7.2	7.0	5.6	5.2	6.1	5.4	4.6	6.2	4.7	5.6	14.3
2019	6.1	5.4	9.4	7.0	5.6	6.9	6.9	6.4	6.6	5.8	5.2	10.4
2020	6.0	6.5	7.3	6.3	6.0	9.1	6.6	5.9	7.1	6.4	6.1	10.2
2021	6.4	6.7	8.3	6.4	5.9	6.8	5.2	5.1	6.5	4.7	5.5	10.6
전 기간 평균	5.5	6.0	8.2	6.8	5.7	8.2	4.7	4.9	5.5	5.8	5.9	12.2

자료: 저자작성

다. 경제성질별 주요 불용사업 분석

1) 목별 주요 불용사업 분석

주요 불용사업을 지출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융자금, 민간이전지출목을 중심으로 불용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금은 2021년 전체 불용액 4조 8,203억 원(불용률 9.2%) 중 주요 불용사업에서 94.0%를 차지하는 4조 5,276억 원(불용률 24.9%)으로 나타났다. 민간이전은 전체 불용액 3조 2,550억 원(불용률 2.4%) 중 주요 불용사업에서 70.0%를 차지하는 2조 2,777억 원(불용률 25.1%)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지출목 사업의 불용규모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출목의 공통점은 융자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사업 형태로 개인 또는 기업과 밀접한 사업유형이라는 점이다.

국고보조금과 융자사업의 일반적인 추진방식을 보면, 보조사업자 및 융자사업자를 선정 후 이들에게 사업자금을 교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는 등의 원인으로 사업 시작 시점이 지연되어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김성주·전성만(2020)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지적하고 있다.

〈표 III-5〉 2021년 지출목별 주요 불용사업의 불용액 및 불용률

(단위: 억 원, %)

지출목명		주요 불용사업		이의 사업		전체 사업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110	인건비	5,215	7.2	5,783	1.6	10,998	2.5
210	운영비	5,003	11.2	2,825	1.2	7,828	2.8
220	여비	1,639	47.3	426	10.8	2,065	27.8
230	특수활동비	179	8.8	6	1.3	184	7.5
240	업무추진비	210	21.0	37	4.1	247	12.9
250	직무수행경비	53	5.7	169	1.8	222	2.1
260	연구용역비	535	10.2	419	1.4	954	2.7
270	안보비	459	6.1	0		459	6.1
310	보전금	927	17.3	2,037	0.9	2,964	1.2
320	민간이전	22,777	25.1	9,773	0.8	32,550	2.4
330	자치단체이전	7,207	23.2	1,452	0.1	8,659	0.4
340	해외이전	2,071	65.1	254	1.4	2,325	10.9

지출목명		주요 불용사업		이외 사업		전체 사업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350	일반출연금	1,370	14.4	228	0.1	1,598	0.7
360	연구개발출연금	169	6.3	772	0.3	941	0.4
410	건설보상비	294	18.6	70	0.4	364	2.0
420	건설비	4,171	18.1	2,429	1.8	6,599	4.1
430	유형자산	1,017	11.9	948	0.6	1,966	1.2
440	무형자산	319	64.9	3	0.7	323	33.7
450	융자금	45,276	24.9	2,927	0.9	48,203	9.2
460	출자금	6,602	38.1	5	0.0	6,607	5.9
490	지분취득비	0		1	0.1	1	0.1
510	상환지출	0		7,725	4.5	7,725	4.5
710	예비비 및 기타	1,068	13.8	43	0.7	1,111	8.2
합계		106,561	20.5	38,333	0.7	4,894	2.3

자료: 저자 작성

2) 민간이전, 융자금, 출자금 목의 주요 불용사업 세부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불용사업의 지출목에서 민간이전, 융자금, 출자금 관련 사업의 불용규모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민간이전, 융자금, 출자금 지출목의 세목 별로 한 단계 더 내려가 유형을 분석해 보았다.

민간이전 목의 세목별 주요 불용사업의 불용규모는 민간경상보조 즉, 국고보조금 사업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경상보조 전체 불용액 1조 4,472억 원 중에서 대부분인 1조 3,933억 원이 주요 불용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불용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경상보조의 불용률은 26.4%에 달해, 주요 불용사업이 아닌 이 외 사업 불용률 0.1%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민간부문에 보조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으로 인한 문제와 보조사업 운영결과 발생하는 다양한 사유의 불용문제 등이 있다.

주요 불용사업 중 2021년 기준 1,000억 원 이상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경험기반(무상), 내일배움카드(일반), 민생협력지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등이 있다.

민간이전 목 중에서 불용규모가 큰 세목에는 보험금이 있다. 보험금은 사업 추진 과

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험가입, 제보험 등 보험 지급금을 말한다. 보험금은 주요 불용사업에서 불용률은 더 크지만, 불용규모는 이외 사업과 유사한 규모이다.

〈표 III-6〉 2021년 민간이전 세목별 주요 불용사업의 불용액 및 불용률

(단위: 억 원, %)

민간이전 구분	주요 불용사업		이외 사업		전체 사업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고용부담금	331.2	16.2	287.1	1.7	618.2	3.3
구호 및 교정비	46.0	48.9	17.5	1.3	63.5	4.3
민간경상보조	13,933.9	26.4	538.1	0.1	14,472.0	3.5
민간위탁사업비	1,488.2	27.8	782.9	1.1	2,271.1	2.9
민간자본보조	190.5	7.6	102.3	0.5	292.8	1.2
법정민간대행사업비	97.8	15.1	14.7	0.1	112.5	0.6
보험금	6,154.6	26.2	6,732.2	3.0	12,886.9	5.1
연금지급금	45.6	30.1	1,171.8	0.2	1,217.4	0.2
이차보전금	488.8	13.5	126.4	2.6	615.2	7.3
총합계	22,776.6	25.1	9,773.0	0.8	32,549.6	2.4

자료: 저자 작성

용자금은 기타민간용자금, 지방자치단체용자금, 통화금융기관용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타민간용자금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불용사업 중 2021년 기준 1조 원 이상의 사업에는 공공임대주택지원(용자), 행복주택(용자), 소상공인지원용자(기금), 전세임대주택지원(용자) 등이 있다. 이 중 소상공인지원용자(기금)의 경우 2021년 4.1조 원 예산 중 1.8조 원의 불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III-7〉 2021년 민간이전 세목별 주요 불용사업의 불용액 및 불용률

(단위: 억 원, %)

민간이전 구분	주요 불용사업		이외 사업		전체 사업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기타민간용자금	43,753.2	24.8	1,883.7	0.6	45,636.9	9.2
지방자치단체용자금	-	-	1,043.6	5.0	1,043.6	5.0
통화금융기관용자금	1,522.9	25.6	0.0	0.0	1,522.9	24.5
용자금	45,276.1	24.9	2,927.3	0.9	48,203.4	9.2

자료: 저자 작성

출자금에는 일반출자금 세목이 있으며, 출자금에서 불용의 발생은 대부분 주요 불용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출자금에서 불용률이 높은 사업으로는 국민임대출자, 영구임대출자, 행복주택출자, 임대주택리츠출자,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등이다.

〈표 III-8〉 2021년 민간이전 세목별 주요 불용사업의 불용액 및 불용률

(단위: 억 원, %)

민간이전 구분	주요 불용사업		이외 사업		전체 사업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불용률
일반출자금	6,602.5	38.1	4.7	0.0	6,607.2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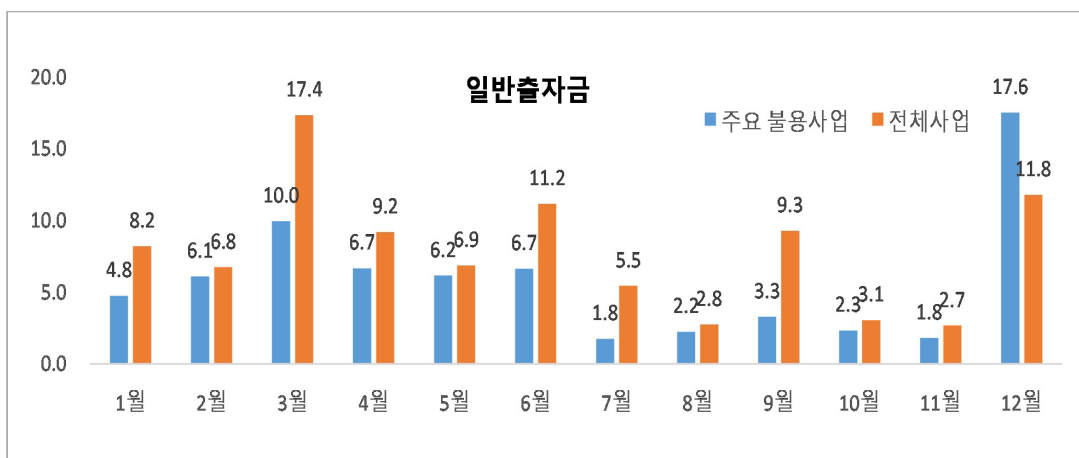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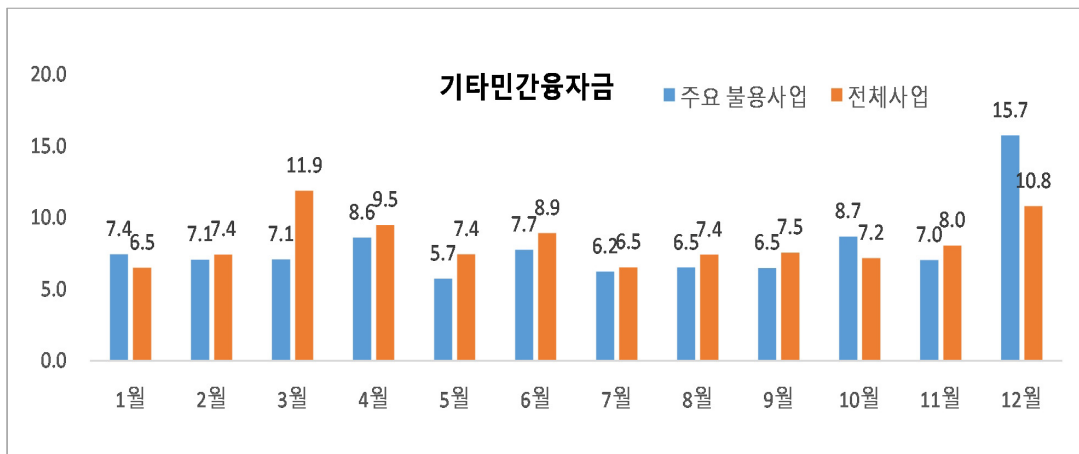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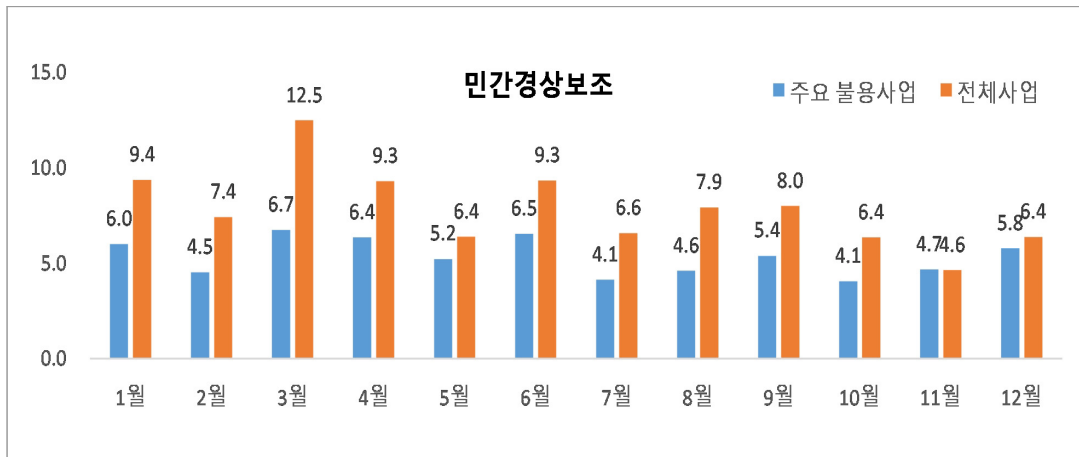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주요 불용사업과 전체 사업의 월별집행률을 비교하면, 11월, 12월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에서 집행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큰 차이가 나는 구간은 사업을 시작하는 1월부터 4월로, 집행률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계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집행지연요소로 인해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타민간융자금의 경우는 주요 불용사업과 전체 사업은 3월, 12월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3월의 경우는 전체 사업 대비 집행률이 다소 낮으나 12월의 경우는 전체 사업의 평균보다 더욱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출자금의 경우 월별 집행률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사업 월별 집행률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월인 3월, 6월, 9월, 12월에 집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불용규모가 큰 주요 불용사업의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 다른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집행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연중 집행률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담당자는 12월에 집행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유형은 개별 출자사업의 계약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집행률과 불용률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III-4〉 주요 불용사업의 관심 세목별 월 집행률 비교 : 2021년



자료: 저자 작성

2 집행 변동성과 집행 분석

가. 집행패턴과 월별 집행 및 불용규모

심혜인(2020)²⁾에서는 집행패턴을 반기 집중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으로 구분하여 추이 형태를 그래프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상반기 집중집행형은 집행실적 규모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많은 것으로 정의하였고, 하반기 집중집행형은 반대이다. 연중 균등집행형은 1/4, 2/4, 3/4, 4/4 분기별 집행률이 $25\% \pm 12.5\%$ p 편차 범위 내로 유지되는 사업을 말한다. 일회성 집행형은 구체적으로 한 달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 정의에 따른 집행유형을 다시 구분해 보았다. 심혜인(2020)과의 차별성으로는 첫째, 집행관리대상인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대상³⁾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총지출 전체 사업으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분석자료의 확장차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또한, 불용과 집행과정을 연계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1) 반기별 집행사업

반기별 집행사업은 월별 집행률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어느 시점에 더 집중되었는가를 통해 판단하며,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 중에서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의 비중이 전체 사업의 60%인 4,936개이다.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3,156개로 39%이며, 상하반기 균형집행형 사업은 59개로 1% 이내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불용사업의 경우는 전체 2,389개 사업 중 63%가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으로 1,517개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월별 집행률 비교를 통한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반면, 상반기 집중집행형의 경우 860개로 36%를 차지하며, 균형집행형 사업도 12개로 소수이다.

2) 심혜인(2020),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3)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매년 선정기준이 달라져 사업 수 및 예산현액 규모가 총지출과 비교하여 비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경향성을 파악하여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Ⅲ-9〉 반기별 집행사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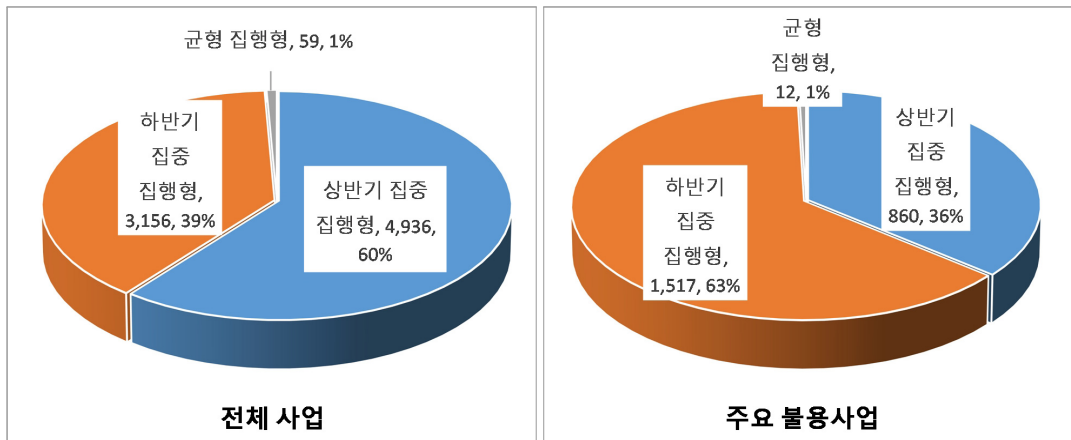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연도)	전체 사업				주요 불용사업			
	상반기 집중집행형	하반기 집중집행형	균형 집행형	합계	상반기 집중집행형	하반기 집중집행형	균형 집행형	합계
2014	4,007	4,585	97	8,689	536	1,879	12	2,427
2015	4,312	4,095	81	8,488	489	1,479	12	1,980
2016	3,658	3,654	65	7,377	484	1,374	10	1,868
2017	4,146	3,939	103	8,188	447	1,487	15	1,949
2018	3,730	3,484	105	7,319	445	1,241	28	1,714
2019	4,128	3,335	80	7,543	422	1,080	17	1,519
2020	4,674	3,256	53	7,983	766	1,375	12	2,153
2021	4,936	3,156	59	8,151	860	1,517	12	2,389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5〉 반기별 집행사업 분포 : 2021년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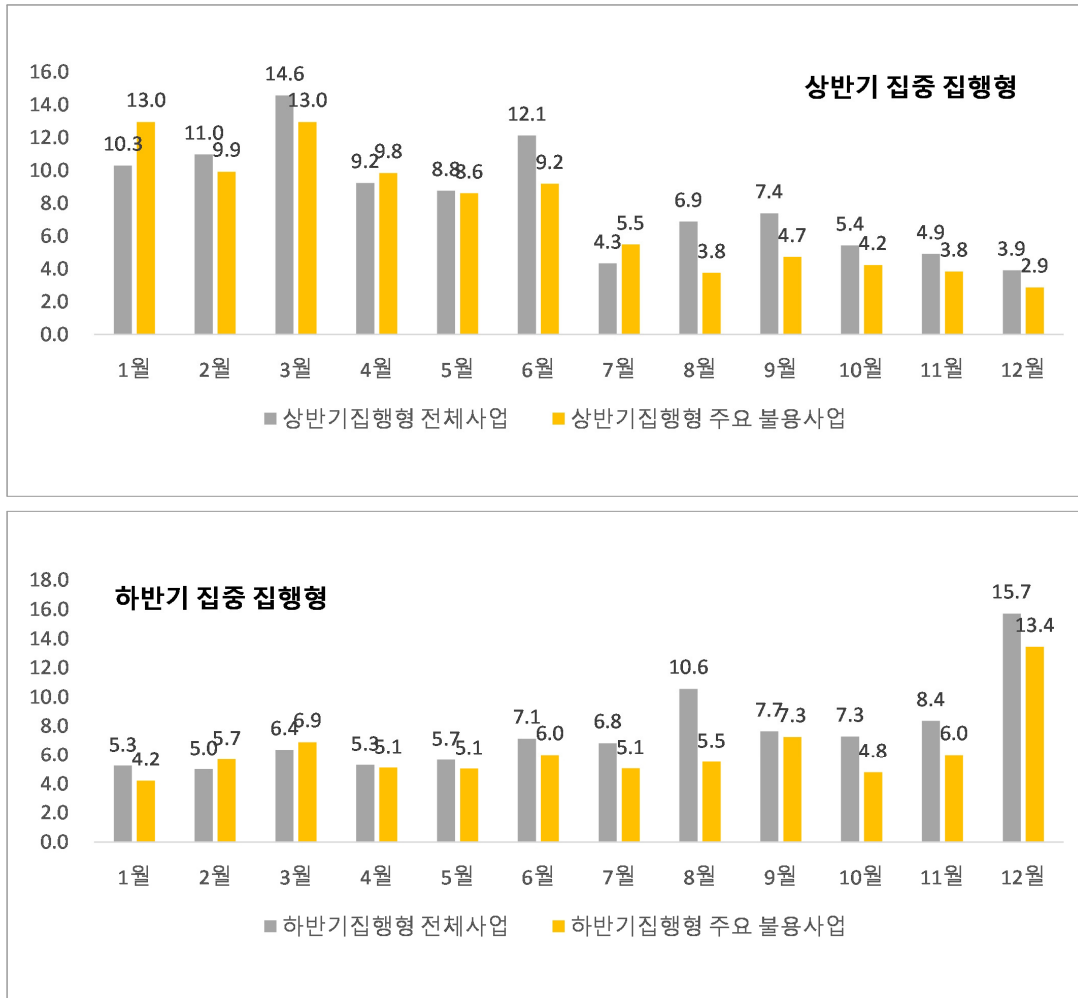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상반기 집중집행형사업의 경우 주요 불용사업의 월별 집행률은 전체 사업에 비해 1월, 4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집행률 수준이 낮으나, 월별 집행률의 경향성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은 66.0%인 가운데, 주요 불용사업도 63.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의 하반기 집행률이 56.4%인데 비해, 주요 불용사업은 42.1%에 그치고 있다. 상하반기로 집행기간을 구분하여 볼 때, 주요 불용사업의 특징은 하반기 집행이 부진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림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Ⅲ-6〉 반기별 집행사업의 월별 집행률 추이 : 2021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2) 연중 균등집행사업

연중 균등집행사업은 월별 집행률이 분기별로 $25\% \pm 12.5\%p$ 편차 범위 내로 유지되는 사업을 말한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 중에서 균등집행형 사업은 전체 사업의 17%인 1,416개이다. 나머지 83%의 사업은 월별 집행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요 불용사업의 경우도 동일하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분류한 사업 중 390개 사업을 균등집행형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Ⅲ-10〉 연중 균등집행사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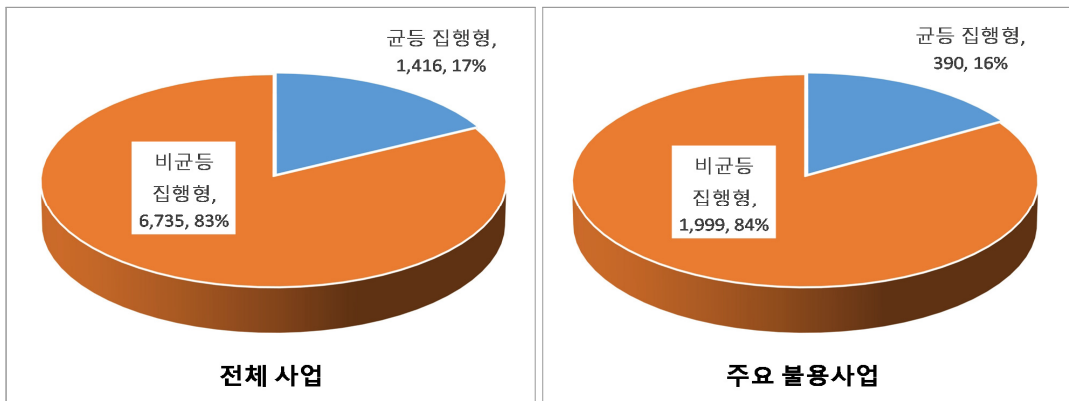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연도)	전체 사업			주요 불용사업		
	균등집행형	비균등집행형	합계	균등집행형	비균등집행형	합계
2014	1,903	6,786	8,689	308	2,119	2,427
2015	1,901	6,587	8,488	270	1,710	1,980
2016	1,838	5,539	7,377	321	1,547	1,868
2017	1,664	6,524	8,188	262	1,687	1,949
2018	1,720	5,599	7,319	312	1,402	1,714
2019	1,758	5,785	7,543	311	1,208	1,519
2020	1,540	6,443	7,983	355	1,798	2,153
2021	1,416	6,735	8,151	390	1,999	2,389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7〉 연중 균등집행사업 분포 : 2021년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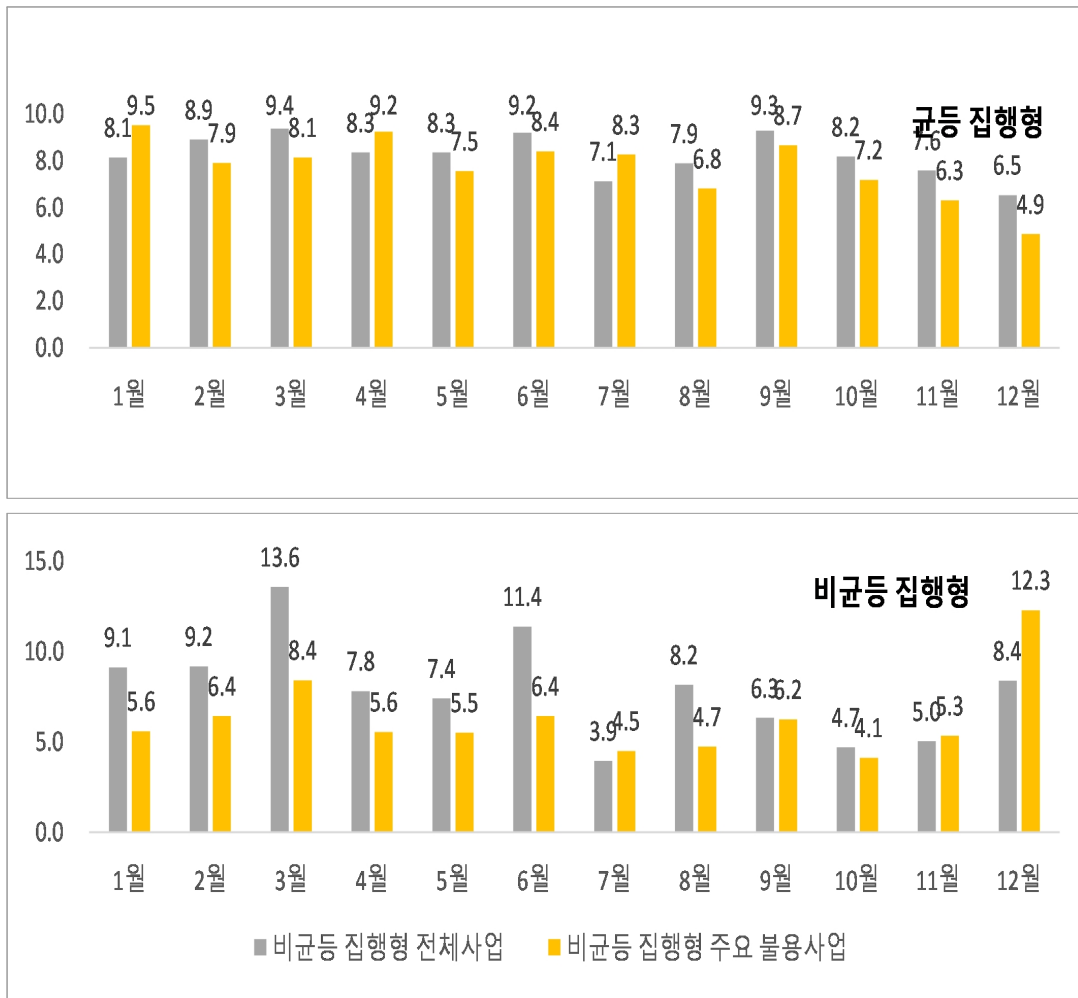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경우 주요 불용사업의 월별 집행률은 전체 사업에 비해 1월, 4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집행률 수준이 낮으나, 월별 집행률의 경향성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들에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하여 의료급여경상보조, 창업지원, 주거지원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룬다.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경우 월 집행률이 7~9%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주요 불용사업의 경우는 연중 균등집행사업과의 유사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하반기 집행형 사업의 집행 추이가 유사하다. 11월,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에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III-8〉 연중 균등집행사업의 월별 집행률 추이 : 2021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 일회성 집행사업

일회성 집행사업은 한 달에만 집행이 발생한 사업을 말한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 중에서 일회성 집행사업은 전체 사업의 8%인 644개이다. 나머지 92%의 사업은 월별 집행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요 불용사업의 경우도 동일하다.

〈표 Ⅲ-11〉 일회성 집행사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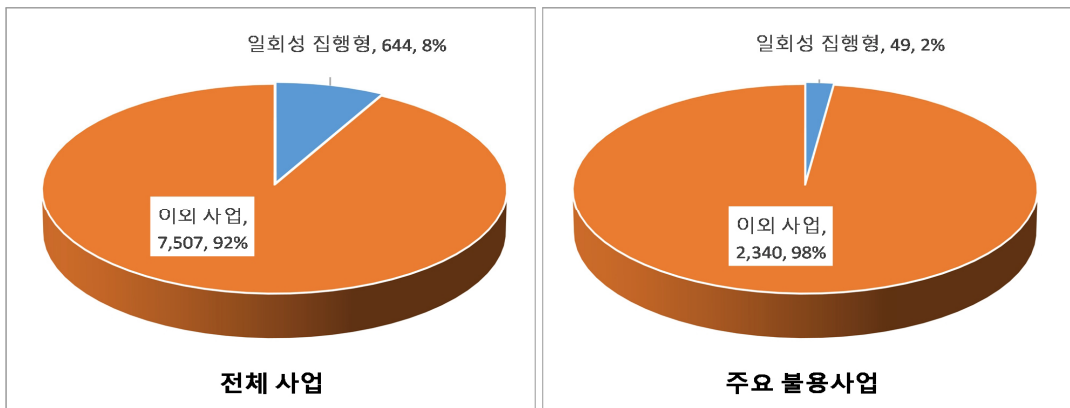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연도)	전체 사업			주요 불용사업		
	일회성 집행형	이외 사업	합계	일회성 집행형	이외 사업	합계
2014	893	7,796	8,689	284	2,143	2,427
2015	594	7,894	8,488	88	1,892	1,980
2016	478	6,899	7,377	69	1,799	1,868
2017	532	7,656	8,188	62	1,887	1,949
2018	462	6,857	7,319	51	1,663	1,714
2019	582	6,961	7,543	32	1,487	1,519
2020	706	7,277	7,983	63	2,090	2,153
2021	644	7,507	8,151	49	2,340	2,389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9〉 일회성 집행사업 분포 : 2021년

(단위: 개, %)



자료: 저자 작성

나. 집행패턴과 변동성 관계 분석

1) 월별 집행률의 변동성 지표

재정사업의 세부사업 수가 매년 8,000개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을 일일이 시각화 자료로 볼 수 없을뿐더러, 목, 세목으로 분석범위를 확장하면 3만 개가 넘어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에 그간의 집행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유형을 판단하고 제안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과 집행관리단계에서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2021년 재정 집행자료를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월별 집행률

을 활용하여 변동성을 통해 월 집행패턴이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이다.

$$SD = \sqrt{\frac{\sum_{m=1}^{12} (X_m - \bar{X})^2}{12}}$$

* 단, m은 월을 의미하며, X_m 은 m월 집행액을, $\bar{X}$ 는 연간 월평균 집행액을 의미

예를 들어, 매월 유사한 규모로 집행하는 경우 표준편차가 0에 가까울 것이며, 특정 시점에 집중집행하는 경우 표준편차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집행하는 경우 표준편차는 0이 되고, 특정월에 100% 집행을 하게 되면 표준편차는 28.9가 된다.

표준편차 이외에 지니계수를 활용하는 대안도 있는데,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크다. 또한 변이 계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평균이 100%/12월로 고정될 가능성이 있다.

2) 집행률 변동성 지표와 집행패턴 관계 검증결과

이제 앞서 분석한 집행패턴과 월별 집행률의 변동성 지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관계분석은 변동성 지표가 일회성 집행사업, 반기 집행형, 균등집행형 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사용과 해석이 용이한 t-test 검증법을 활용하였다. t-test 검증법을 활용하여, 일회성 집행사업과 아닌 사업의 변동성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기 집행형 사업과 아닌 사업의 차이를 검토하고, 균등집행형 사업과 아닌 사업과의 월별 집행률 변동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4년으로 하고, 그 기간의 모든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기간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저자가 기간별로 나누어서 검증하였는데,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선 상반기 집행형 사업과 하반기 집행형 사업의 경우, 월별 집행률의 표준편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반기 집행형의 경우 월 집행률 표준편차가 13.78629이며, 하반기 집행형의 경우는 9.063929로

두 유형 간의 차이는 4.722362였다. 이는 상반기 집행형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심의 집행을 하므로 하반기 월 집행률과의 집행편차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하반기 집행형의 경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말 집중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에 따라 10월까지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었다.

〈표 III-12〉 반기 집행형 유형과 변동성 지표 간 t-test 검증 결과

Variable	Obs	Mean	Std. Err.	Std. Dev.	[95% Conf. Interval]	
상반기 집행형	32,846	13.78629	.0431936	7.828177	13.70163	13.87095
하반기 집행형	29,504	9.063929	.0415619	7.138968	8.982466	9.145392
combined	62,350	11.55167	.0315231	7.871303	11.48989	11.61346
diff	4.722362	.0602383	4.604295	4.840429		
diff = mean(상반기 집행사업) – mean(하반기 집행사업)					t = 78.3947	
Ho : diff = 0				degrees of freedom = 62348		
Ha : diff < 0 Pr(T < t) = 1.0000		Ha : diff != 0 Pr(T > t) = 0.0000		Ha : diff > 0 Pr(T > t) = 0.0000		

자료: 저자 작성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도 월별 집행률의 표준편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중 균등집행형의 경우 월 집행률 표준편차가 4.826698이며, 그 외의 경우는 13.44163로 두 유형 간의 차이는 8.614936이었다. 이는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과 편차가 거의 두 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반기 집행형 유형의 변동성 지표와의 차이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의 경우가 변동성 지표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연중 균등집행형 유형과 변동성 지표 간 t-test 검증 결과

Variable	Obs	Mean	Std. Err.	Std. Dev.	[95% Conf. Interval]	
그 외	49,253	13.44163	.0347918	7.721342	13.37344	13.50983
균등집행사업	13,740	4.826698	.0280783	3.291277	4.771661	4.881736
combined	62,993	11.56255	.03128	7.85079	11.50124	11.62386
diff	8.614936	.0675209	8.482595	8.747277		
diff = mean(그 외) - mean(균등집행사업)					t = 127.5892	
Ho : diff = 0				degrees of freedom = 62991		
Ha : diff < 0 Pr(T < t) = 1.0000		Ha : diff != 0 Pr(T > t) = 0.0000		Ha : diff > 0 Pr(T > t) = 0.0000		

자료: 저자 작성

일회성 집행형 사업도 월별 집행률의 표준편차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회성 집행인 경우 한 달에만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수준일 것이다. 특히 한 달에 100%를 집행하였다면, 표준편차는 28.9 정도이다. 일회성 집행형의 경우 월 집행률 표준편차가 26.16643이며, 그 외의 경우는 10.3332로 두 유형 간의 차이는 15.83323이었다. 이는 일회성 집행형 사업의 월 집행률 표준편차가 26.16643으로 특정 월에 평균적으로 약 90% 집행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4〉 일회성 집행형 유형과 변동성 지표 간 t-test 검증 결과

Variable	Obs	Mean	Std. Err.	Std. Dev.	[95% Conf. Interval]	
그 외	58,102	10.3332	.0273503	6.592614	10.27959	10.38681
일회성 집행사업	4,891	26.16643	.097285	6.80369	25.97571	26.35715
combined	62,993	11.56255	.03128	7.85079	11.50124	11.62386
diff	-15.83323	.0984019	-16.02609	-15.64036		
diff = mean(그 외) - mean(일회성 집행사업)					t = -1.6e+02	
Ho : diff = 0				degrees of freedom = 62991		
Ha : diff < 0 Pr(T < t) = 0.0000		Ha : diff != 0 Pr(T > t) = 0.0000		Ha : diff > 0 Pr(T > t) = 1.0000		

자료: 저자 작성

집행패턴 네 가지 유형과 변동성 지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일회성 집행사업의 표준편차가 26.16643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상반기 집행형 사업의 집행 표준편차가 13.78629였으며, 하반기 집행형 사업의 변동성 지표는 9.063929이며,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이 4.826698로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을 변동성의 전 기간 평균은 8.135249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반기 집행형 사업들의 변동성 특징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큰 틀에서 표준오차를 활용한 변동성 지표가 월별 집행을 변동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회성 집행사업의 경우처럼 언제 일회성 지출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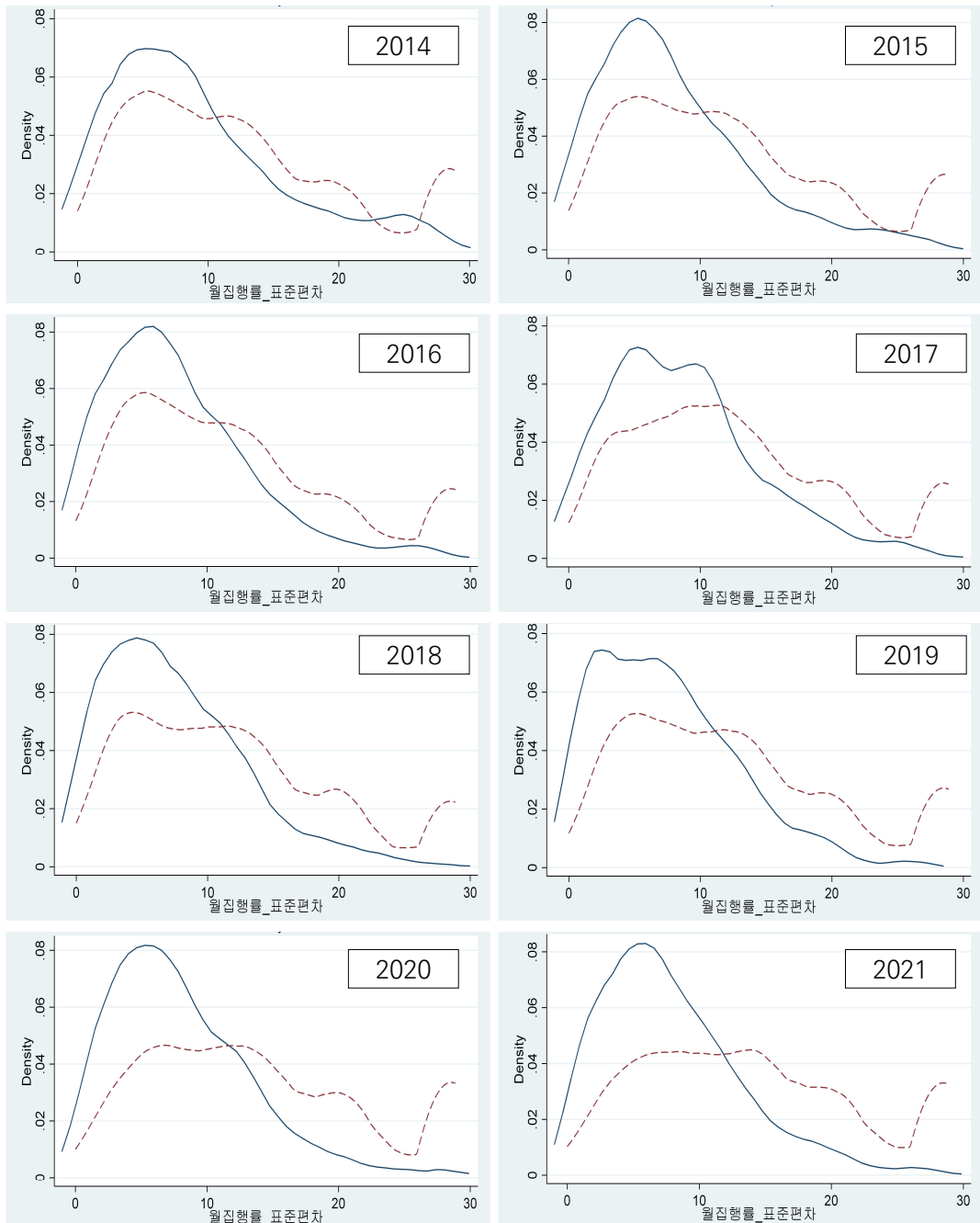
다. 주요 불용사업의 집행 변동성과 불용률 분석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을 표준편차의 분포는 전체 재정사업의 월 집행을 표준편차보다 작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3-10〉 참고). 주요 불용사업의 월평균 집행률의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월별 집행률이 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사업 분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주요 불용사업과 전체 사업의 집행률 분포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최근에는 차이가 명확하다.

전체 사업의 경우 kernel density 분포의 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특정월에 전부 집행하는 일회성 집행형 사업이 집중하여 분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회성 집행형 세부사업은 2021년 기준으로 536개 사업이었는데, 이 중 주요 불용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9개에 불과했다. 또한, 일회성 집행형 사업은 불용률이 매우 적은 특징이 있었다. 2021년 일회성 집행형 사업의 불용률 평균은 0.49%로 그렇지 않은 사업의 불용률 평균 7.0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월 집행률의 표준편차를 통해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 주요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특징은 하반기 집행형이며, 한편으로는 상반기에 집행률이 낮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지속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시에 지출하는 사업의 경우 R&D 사업과 일부 SOC 사업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기에 출연방식으로 일시에 교부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월 또는 짧은 기간에 상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점이 많다.

〈그림 III-10〉 주요 불용사업과 전체 사업의 월 집행률 표준편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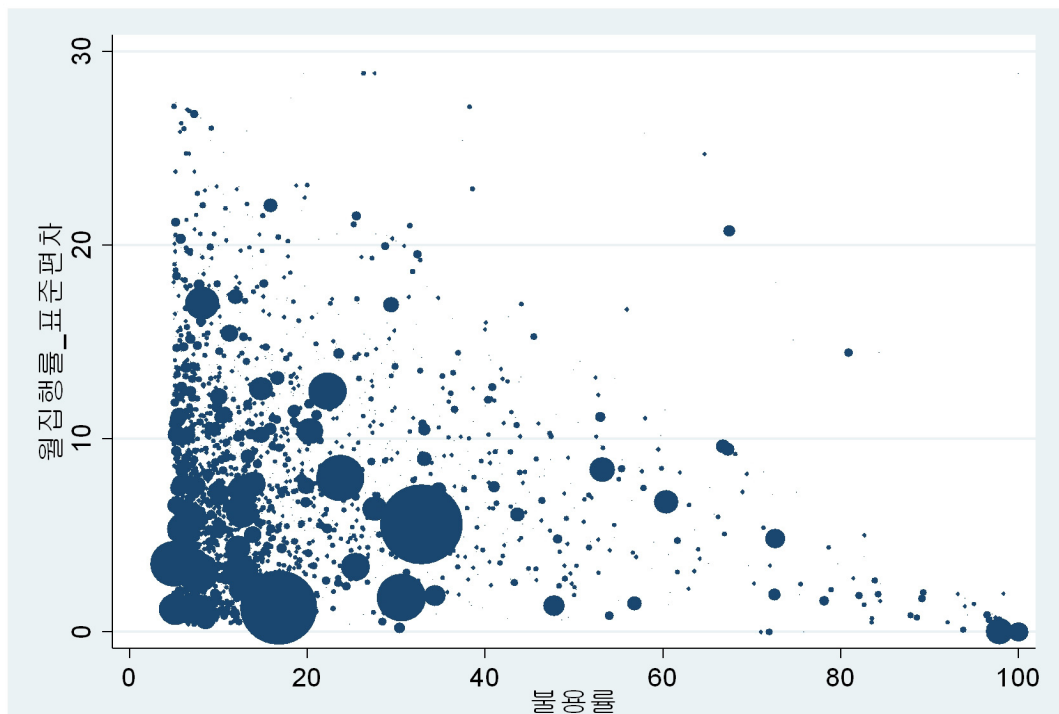
주: 실선은 주요 불용사업, 점선은 전체 사업의 월집행률 표준편차의 Kernel density 분포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사업별 집행 패턴과 불용률 간 산포도 분석을 통한 집행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아래 그림은 2021년 월 집행 변동성(표준편차)과 불용률 간 관계를 산포도로 표시한 것이다. 산포도는 예산규모도 고려하였으며, 원의 크기가 큰 것은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불용률이 적은 수준이라도 불용금액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용률과 월 집행률 표준편차의 상관관계는 산포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021년의 상관계수는 -0.3059 였다. 이는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률 추이 분석과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재정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월 집행률 표준편차가 10 이내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불용률은 10~3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물건비, 인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관련 세목에 대한 월집행률 표준편차와 불용률의 산포도 분석결과, 주요 불용사업이 이 외사업에 비해 변동성이 작고 불용률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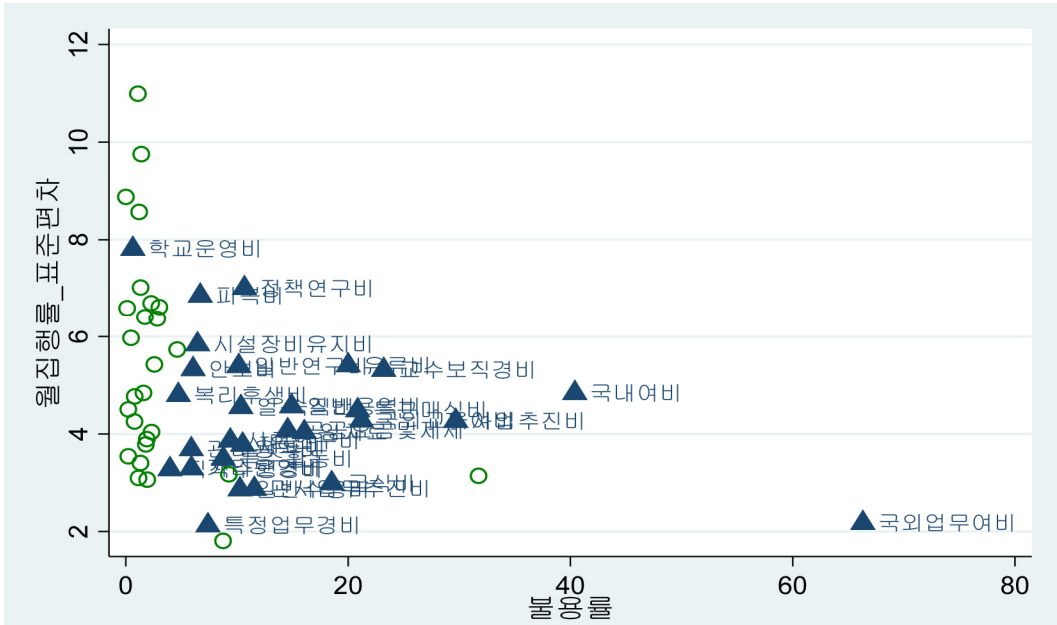
〈그림 Ⅲ-11〉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 표준편차와 불용률 산포도 : 2021년



주: 2021년 주요 불용사업의 월 집행 표준편차와 불용률의 상관계수는 -0.3059 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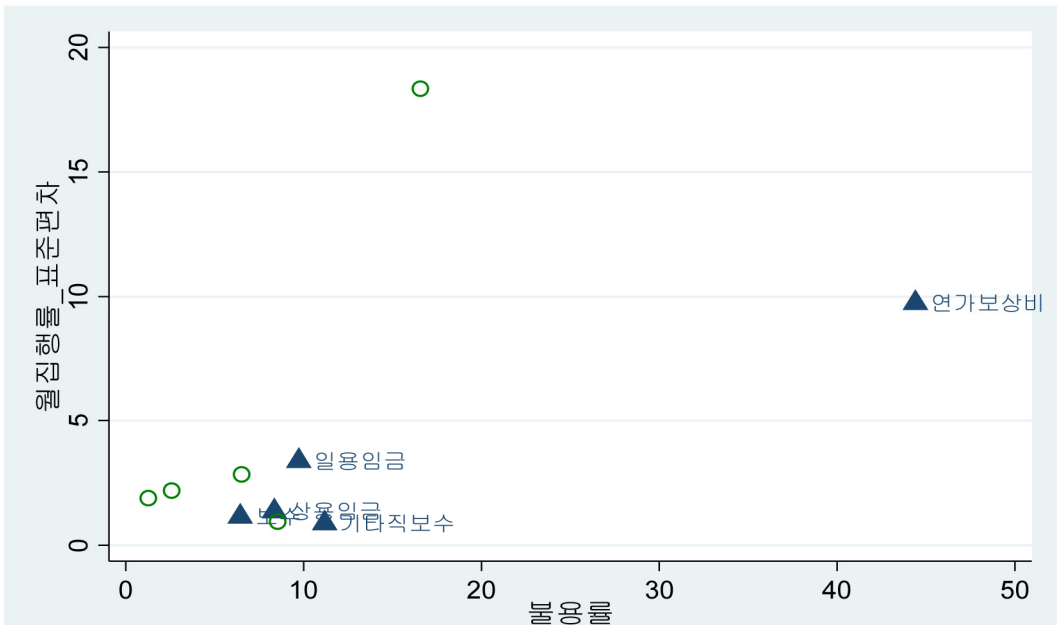
〈그림 III-12〉 물건비 관련 세목별 월 집행 표준편차와 불용률 산포도



주: 세모는 주요 불용사업, 동그라미는 이외 사업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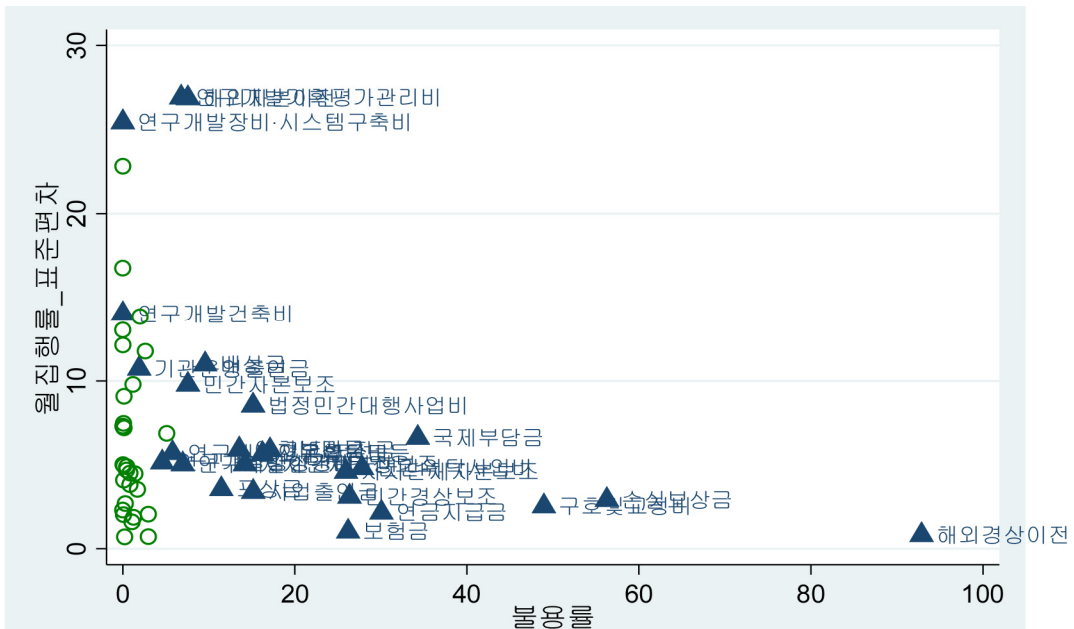
〈그림 III-13〉 인건비 관련 세목별 월 집행 표준편차와 불용률 산포도



주: 세모는 주요 불용사업, 동그라미는 이외 사업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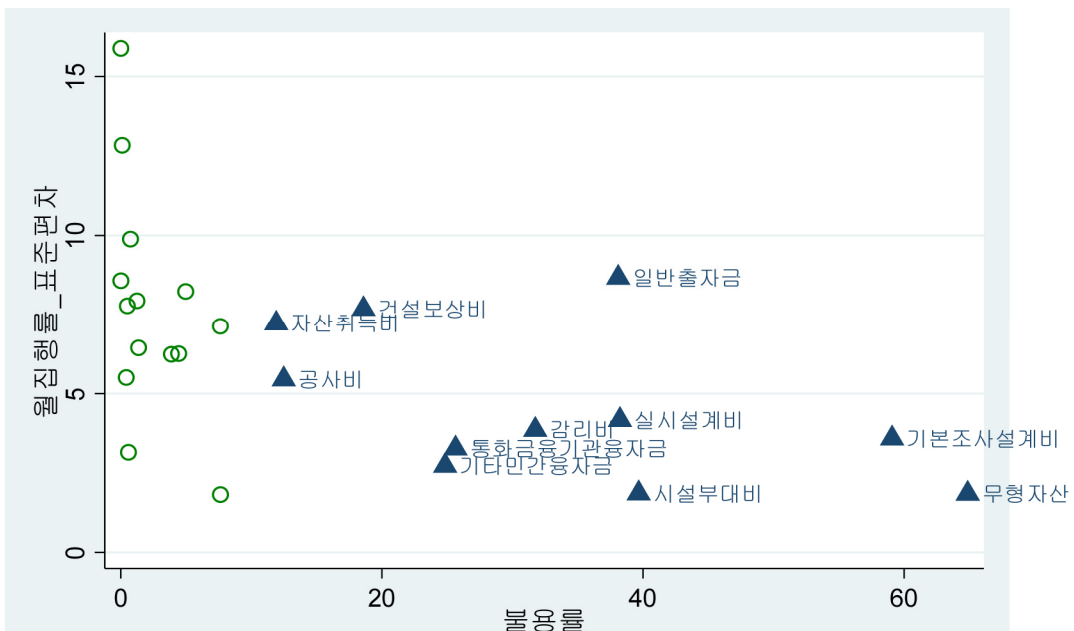
〈그림 III-14〉 이전지출 관련 세목별 월 집행 표준편차와 불용률 산포도



주: 세모는 주요 불용사업, 동그라미는 이외 사업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5〉 자산취득 관련 세목별 월 집행 표준편차와 불용률 산포도



주: 세모는 주요 불용사업, 동그라미는 이외 사업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IV

효율적 집행관리 개선방안

1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중 집행관리 필요

집행관리점검회의는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재정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재정의 경기조절 측면에서 신속집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또는 사업 부서에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둘째는 하반기 집행을 제고이다. 재정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달성해 가는 과정은 재정을 수반하게 된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집행과정을 통해 재정사업의 진도를 확인할 수 있고, 목표한 재정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이 집행관리인데,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할 수는 없기에 재정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 범위와 대상사업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사업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주요 불용사업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과년도 재정사업 집행결과를 통해 주요 불용사업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주요 관리대상사업과는 다를 수 있다. 주요 불용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량사업 중에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인 사업이며, 불용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불용사업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의 29.3% 정도를 관리대상으로 축약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불용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높고, 재정규모가 큰 사업들이므로 집행관리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당해연도 재정사업의 집행관리 시에는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불용사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집행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정사업의 월별 집행을 정보를 활용한 집행특성을 반영하여, 주요 관리대상사업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유사한 집행을 보이는 연중 집행형 사업을 과년도 집행률 변동성 지표 등으로 정의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월 집행률의

표준편차를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특징은 월별 집행 편차가 적은 사업군 중에서 하반기 집행형 사업군이었다.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과 같이 연중 균등 집행형의 경우는 의무지출 사업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적다. 또한, 일회성으로 지출하는 사업의 경우도 집행관리의 필요성이 적을 수 있다.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R&D 사업과 일부 SOC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출연방식으로 일시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종합할 수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2022)에서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에 대해 지적한 것과 같이, 향후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중 집행관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부진이 나타나는 연례적 사업의 특성 또한 고려하여 집중관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불용 사업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집행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있는 재정관리가 필요하며, 부진 사업에 대한 충실한 환류를 통해 사업의 구조나 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사업 확정 후 집행 과정이나 공공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집행 과정의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박정수, 2019).

2 집행률 제고 및 불용방지를 위한 신규사업 관리 필요

신규사업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사업 진도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초 집행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어 불용률이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의 전체 신규사업의 불용률은 5.453%로 계속사업 불용률 평균(6.72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 불용사업을 대상 신규사업의 불용률이 더 높았다. 주요 불용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의 불용률은 평균 25.770%로 계속사업 불용률 평균 19.731%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신규사업의 안정적 착근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관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예산의 불용이 절약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계획 대비 진행하

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IV-1〉 신규사업의 평균 불용률 : 2021년

구분		신규사업 여부		합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비대상 사업	불용률	1.067	0.471	1.003
	사업 수	5,132	620	5,752
주요 불용사업	불용률	19.731	25.770	20.116
	사업 수	2,232	152	2,384
전체	불용률	6.724	5.453	6.603
	사업 수	7,364	772	8,136

주: 분석결과는 일부 이상값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3 집행정보와 결산 불용정보의 예산편성 환류 필요

예산편성 과정은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 사용하여 재정목표를 달성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하게 되며, 과년도 재정사업 집행정보와 결산정보를 참고하게 된다. 예산 집행의 효과성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재정사용이 아니고서는 불용액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적일 수 있다.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사전수요조사의 과학적 설계와 사업심의 강화 대책을 세우고, 집행단계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을 점검의 실효성 제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 방안 강구, 계약절차의 조기 착수 방안, 업무담당자의 사업관리 활동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피현주·이상목, 2016).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정보가 집행정보와 결산정보가 될 것이다.

예산의 기획·편성단계에서 사업여건 분석을 통해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한 경우 불용률이 낮다는 점은 김성주·전성만(2020)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개별사업별로 기획단계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사업을 모니터링하여 계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산집행률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성주·전성만

(2020)은 예산의 집행·성과단계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외부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재정관리 관점에서 불용액과 관련하여 예산-집행-결산 과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산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을 검토하고, 집행단계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집행관리를 진행하며, 결산단계에서는 결산보고서를 통해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의 불용액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표 IV-2〉 불용액 관련 법적 근거 규정

예 산	집 행	결 산
• 국가재정법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국가재정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가회계법 시행령
불용 등 집행실적을 반영한 예산작성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회계연도 내 발생한 불용규모 검토

자료: 저자 작성.

향후 불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dBrain 내 불용사유 입력 시 구체적인 유형 구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인 정비が必要할 것이다. 불용사유의 입력 등과 같은 업무는 실제 정보문서를 작성하는 기록담당자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담당자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체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기록 담당자와 시스템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불용정보를 바탕으로 연중,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해 수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공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예산과 기금별로 불용의 특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회계별 불용특성을 점검해보고, 불용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봉환·이권희(2019),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재정학연구」 제12권 제1호, pp.27-53.
- 김성주·전성만(2020),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20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정수(2019),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불용 및 이월관리”, 「월간 나라재정」, 2019년 2월호(통권 제26호), pp.20-25.
- 심혜인(2020),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 양인용·배기수(2019). “중앙정부의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한국경영교육학회」 제34권 제1호. pp.341-363.
- 장혜윤·장현경·박충훈(2019), “사업특성에 따른 신속집행제도의 운영효과 분석: 불용률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3호. pp.111-136.
- 피현주·이상목(2016),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제42권 제1호, pp.49-65.
- 국회예산정책처(2022),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
- 기획재정부(2022a),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월.
- 기획재정부(2022b),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 유형별·목별 매뉴얼)」, 5월.
- 한국재정정보원(2022), 「2022 주요 재정통계」.



1. 2021년 특별회계별 집행 및 불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이월액	이월률
기업특별회계	74,910.4	70,609.6	94.3	3,992.9	5.3	307.9	0.4
양곡관리특별회계	19,602.0	19,599.0	100.0	1.1	0.0	1.8	0.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3,650.0	11,117.5	81.4	2,527.6	18.5	4.8	0.0
우편사업특별회계	39,365.0	37,801.7	96.0	1,323.5	3.4	239.7	0.6
조달특별회계	2,293.5	2,091.3	91.2	140.7	6.1	61.5	2.7
기타특별회계	535,070.1	511,727.7	95.6	10,944.7	2.0	12,397.7	2.3
교도작업특별회계	706.3	647.6	91.7	26.5	3.8	32.2	4.6
교통시설특별회계	145,068.9	140,216.1	96.7	2,341.3	1.6	2,511.5	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797.4	100,099.2	93.7	2,442.9	2.3	4,255.3	4.0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6,423.6	4,227.9	65.8	441.4	6.9	1,754.4	27.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8,228.7	76,967.6	98.4	764.5	1.0	496.6	0.6
등기특별회계	2,543.4	2,323.5	91.4	141.3	5.6	78.6	3.1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 화특별회계	25,543.1	25,533.2	100.0	7.9	0.0	2.0	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 성특별회계	1,461.2	1,286.5	88.0	127.7	8.7	46.9	3.2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46,083.3	43,460.3	94.3	2,587.0	5.6	36.0	0.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167.6	3,061.8	96.7	102.4	3.2	3.4	0.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7	39,167.7	100.0	0.0	0.0	0.0	0.0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2,674.2	2,080.3	77.8	43.9	1.6	550.0	2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4,452.5	4,088.7	91.8	68.7	1.5	295.1	6.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04.7	800.5	99.5	3.0	0.4	1.2	0.1
환경개선특별회계	71,947.5	67,766.9	94.2	1,845.9	2.6	2,334.6	3.2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이월액	이월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544.2	9,063.4	95.0	420.4	4.4	60.4	0.6
경찰병원	783.0	752.4	96.1	30.2	3.9	0.4	0.1
국립공주병원	163.6	141.4	86.4	22.2	13.6	0.0	0.0
국립과천과학관	343.2	277.1	80.7	58.4	17.0	7.7	2.2
국립나주병원	216.7	196.5	90.7	17.5	8.1	2.7	1.2
국립마산병원	204.0	193.2	94.7	10.7	5.3	0.0	0.0
국립목포병원	121.7	110.4	90.7	4.9	4.1	6.3	5.2
국립부곡병원	201.3	179.1	89.0	21.6	10.7	0.7	0.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58.9	606.5	92.0	22.0	3.3	30.4	4.6
국립재활원	621.3	592.0	95.3	22.6	3.6	6.7	1.1
국립정신건강센터	436.3	411.8	94.4	22.5	5.2	2.0	0.5
국립중앙과학관	386.8	369.0	95.4	17.0	4.4	0.8	0.2
국립춘천병원	154.7	133.6	86.4	18.4	11.9	2.7	1.8
특허청	5,252.6	5,100.4	97.1	152.2	2.9	0.0	0.0
특별회계 합계	619,524.7	591,400.6	95.5	15,358.0	2.5	12,766.1	2.1

자료: dBrain⁺

2. 2021년 기금별 집행 및 불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이월액	이월률
계정성기금	200,239.7	197,452.0	98.6	2,787.8	1.4	0.0	0.0
공공자금관리기금	155,634.5	153,460.5	98.6	2,173.9	1.4	0.0	0.0
공적자금상환기금	159.6	86.4	54.1	73.2	45.9	0.0	0.0
복권기금	44,445.6	43,905.0	98.8	540.6	1.2	0.0	0.0
사업성기금	984,696.7	908,056.9	92.2	73,708.6	7.5	2,931.2	0.3
과학기술진흥기금	972.2	972.2	100.0	0.0	0.0	0.0	0.0
관광진흥개발기금	13,492.7	11,739.9	87.0	1,741.4	12.9	11.4	0.1
국민건강증진기금	34,843.3	34,527.8	99.1	244.2	0.7	71.3	0.2
국민체육진흥기금	17,860.7	17,355.7	97.2	343.2	1.9	161.8	0.9
국유재산관리기금	11,383.8	9,323.4	81.9	441.0	3.9	1,619.4	14.2
국제교류기금	655.0	644.0	98.3	10.9	1.7	0.0	0.0
국제질병퇴치기금	428.1	67.6	15.8	360.4	84.2	0.0	0.0
군인복지기금	6,119.5	5,189.0	84.8	869.0	14.2	61.5	1.0
근로복지진흥기금	3,447.9	2,790.8	80.9	657.1	19.1	0.0	0.0
금강수계관리기금	1,189.0	1,161.4	97.7	14.4	1.2	13.2	1.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21.4	2,382.6	98.4	9.2	0.4	29.5	1.2
남북협력기금	12,466.8	335.2	2.7	11,999.3	96.3	132.3	1.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930.1	22,016.2	96.0	360.2	1.6	553.7	2.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06.0	1,506.0	100.0	0.0	0.0	0.0	0.0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23,925.5	23,711.8	99.1	212.5	0.9	1.2	0.0
농지관리기금	17,154.7	17,154.7	100.0	0.0	0.0	0.0	0.0
대외경제협력기금	13,145.9	12,609.4	95.9	400.7	3.0	135.7	1.0
문화예술진흥기금	3,496.2	3,446.2	98.6	48.8	1.4	1.2	0.0
문화재보호기금	1,379.9	1,338.3	97.0	41.3	3.0	0.4	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692.3	1,692.3	100.0	0.0	0.0	0.0	0.0
방송통신발전기금	12,576.4	12,561.1	99.9	15.3	0.1	0.0	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70.8	1,010.8	94.4	60.0	5.6	0.0	0.0
보훈기금	1,479.8	1,401.0	94.7	78.8	5.3	0.0	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822.9	671.4	81.6	103.2	12.5	48.3	5.9
사학진흥기금	2,559.2	1,271.8	49.7	1,283.5	50.2	4.0	0.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촉진기금	438.8	438.8	100.0	0.0	0.0	0.0	0.0
석면피해구제기금	261.7	259.9	99.3	0.9	0.3	0.9	0.4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이월액	이월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30,994.0	212,585.9	92.0	18,408.1	8.0	0.0	0.0
수산발전기금	5,948.8	5,888.2	99.0	56.7	1.0	3.9	0.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	950.6	947.6	99.7	3.0	0.3	0.0	0.0
양성평등기금	4,680.1	4,667.4	99.7	8.1	0.2	4.6	0.1
언론진흥기금	211.9	204.7	96.6	7.2	3.4	0.0	0.0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811.9	799.9	98.5	6.9	0.9	5.1	0.6
영화발전기금	1,494.5	1,414.1	94.6	71.2	4.8	9.2	0.6
원자력기금	3,234.1	3,232.3	99.9	1.2	0.0	0.5	0.0
응급의료기금	2,473.0	2,360.6	95.5	109.4	4.4	3.0	0.1
임금채권보장기금	7,340.0	6,274.1	85.5	1,065.8	14.5	0.0	0.0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기금	517.2	516.8	99.9	0.4	0.1	0.0	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5,180.1	4,812.5	92.9	367.6	7.1	0.0	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기금	6,878.7	6,858.5	99.7	20.3	0.3	0.0	0.0
전력산업기반기금	27,176.6	27,065.1	99.6	110.3	0.4	1.2	0.0
정보통신진흥기금	14,885.7	14,884.4	100.0	1.3	0.0	0.0	0.0
주택도시기금	366,486.8	333,876.7	91.1	32,575.8	8.9	34.4	0.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77,605.6	76,967.2	99.2	638.4	0.8	0.0	0.0
지역신문발전기금	92.9	88.4	95.1	4.5	4.9	0.0	0.0
청소년육성기금	1,395.9	1,361.6	97.5	33.5	2.4	0.9	0.1
축산발전기금	11,156.0	10,272.5	92.1	883.5	7.9	0.0	0.0
한강수계관리기금	5,461.4	5,398.6	98.8	40.1	0.7	22.8	0.4
사회보험성기금	906,943.2	890,363.3	98.2	16,255.1	1.8	324.8	0.0
고용보험기금	222,727.4	209,677.2	94.1	13,048.8	5.9	1.5	0.0
공무원연금기금	211,803.4	211,287.8	99.8	515.6	0.2	0.0	0.0
국민연금기금	300,253.2	299,440.3	99.7	662.0	0.2	150.9	0.1
군인연금기금	35,430.1	35,330.5	99.7	99.6	0.3	0.0	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55,149.2	54,544.6	98.9	432.2	0.8	172.4	0.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1,579.9	80,082.8	98.2	1,497.0	1.8	0.0	0.0
기금 합계	2,091,879.6	1,995,872.1	95.4	92,751.4	4.4	3,256.0	0.2

자료: dBrain⁺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유형 분석 및 집행관리방안

발 행 인 박 용 주 한국재정정보원장

참 여 진 연구총괄 김명규 연구위원

공 저 자 김민경 부연구위원, 지은초 부연구위원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